

한국여성평화방문단 활동 자료집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추진



2007. 12

주 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 원 :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
KOREAN FOUNDATION FOR WOMEN

한국여성평화방문단

활동 자료집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추진

2007. 12

주 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 원 :   **사랑의 연대**  **한국여성재단**

목 차

I. 요약	4
II. 프로그램 개괄	12
1. 프로그램명	12
2. 방문목적	12
3. 방문준비과정	13
4. 4개국 방문 보고	18
1) 중국	18
2) 일본	28
3) 미국	42
4) 러시아	51
III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문서 및 여성6자회담 소개서(국문/영문)	55
IV. 문건 및 자료모음	79
▣ 워크숍 발표문 (1차)	80
▣ 참관기	108
▣ 언론에 비친 여성6자회담	120
▣ 기타- Eight Tips for a Successful Lobby Visit	131

I. 요약

1. 여성6자회담 진행 보고

1) 사업명 :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형성

2) 사업목적 :

(1) 여성들이 최초로 민간 여성 6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촉구를 위해 6자회담 개최국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과정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한다.

(2)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3) 여성평화지도력을 모아내어 여성의 평화문화 확산 참여를 위한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담당하면서 글로벌 여성평화리더십 역량이 개발된다.

(4) 각국 전문가 및 평화, 통일 전문가와 함께 정책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5) 6자회담 개최국의 국제 여성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여 이후 한반도 평화 및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 국제 여성 활동 기반을 갖게 된다.

(6) “2008, 여성6자회담” 준비과정을 통해 화해자, 평화형성자로서의 여성운동 역량이 강화된다.

(7) “2008, 여성6자회담” 준비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책 논의 등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청사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

(8)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의 조짐에 대해 국제사회 여성들의 대응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9) 국방, 외교, 통일분야가 여성과 무관한 분야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여성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제안, 정책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평화세력 형성에 기여한다.

3) 주최/후원단체

주최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4) 사업추진현황

(1) 국내 활동

① 자문위원단 구성

북한 : 김귀옥(한성대 교수), 박순성(동국대 교수), 신효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윤덕희(명지대), 이금순(통일연구원), 이명자(북한영화 전문가),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승환(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일본 : 김지연(이대 사회과학연구소), 정미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중국 : 최지영(한림대국제대학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정남(고대 평화연구소)

미국 : 박건영(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② 프로젝트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2007년 3월 30일(금) 오후 4시

○ 장 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참가자: 윤덕희, 이우영, 이금순, 최지영, 이정남, 강윤희,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 논 의: 자문위 역할/제언/협력(여성입장문서 정립 지원, 각국 상황 정보 공유, 외국 단체와 협력 지원 등)

③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 1차 회의

- 일시: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문숙(교회여성연합회),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평화여성회)
- 논의: 국내네트워크(네트워크명칭, 국회의원 참여여부, 자문위원 문제)
국제네트워크(방문일정, 방문단체 및 정책결정자 관련)
전체일정 및 역할 분담

Ⅱ 여성6자회담 관련 내부 워크숍 보고

- 일시: 2007년 5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정현백 대표 연구실
- 참석: 정현백, 이문숙, 김정수, 조영희, 정경란
- 논의: 여성6자회담의 목표 정립, 방문단 구성, 여성입장문서, 5월23일 워크숍 등

⑤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1차)

- 취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기념 및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 문서 정립을 위한 공개 워크숍
- 일시: 2007년 5월 22일(화) 오후 3시30분
- 장소: 성가수녀원
- 주최: 평화여성회
- 주관: 평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석: 일반시민, 단체활동가, 언론사 관계자 등 25여명
- 주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발표> * 관련 문건은 뒤의 IV.자료 및 문건에 있습니다.

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나.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실천하는 공동체 사회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라. 전체 토론

⑥ “2008, 여성6자회담 추진 활동 및 향후 전망” (2차 워크숍)

- 일시 : 2007년 12월14일(금) 오후 3시
-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프로그램 (사회: 조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보고> ‘2008, 여성 6자회담을 위한 동북아여성네트워크 추진 활동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발표>

- 가. 2008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
- 나. 동북아여성평화회의-‘2008, 여성6자회담 추진 과제와 전망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다. 전체토론

(2) 국제활동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조직 및 4개국 방문

①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

각국을 방문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 각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화해·협력·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역할 강조, 남북여성
교류 지지와 연대 요청,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의 필요성 설명

미국-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여성의 지지와 연대 요청, 북미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일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여성의 지지와 연대 요청, 북일 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중국-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격려, 한·중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러시아-6자회담 러시아 역할 인정, 한·러 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2 한국여성평화방문단 4개국 방문

가. 중국방문

○ 구성: 심영희(단장, 평화여성회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양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전체 행사 코디네이터)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기간: 2007년 7월15일(일)~7월18일(수)

○ 숙소: Jinguo Garden Hotel

○ 일정

일정		프로그램
7/15(일)		행사 프로그램 점검회의
7/16(월)	10:00	중화전국부녀연합회(약칭:부련)와의 간담회
	12:00	부련초청 오찬
	14:00	홍콩부녀심리자문센터와의 간담회
7/17(화)	10: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
	12: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와 함께 점심
	14:00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7/18(수)	10:00	베이징대학교 부녀연구중심과 간담회

나. 일본 방문

- 구성: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의원(민주신당 최고위원)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안인숙(대전여민회 부장)
- 기간: 2007년 8월 22일(수)-25일(토)
- 숙소: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 일정

일정		프로그램
8/22(수)	17:30	퍼스보트 방문 및 간담회
8/23(목)	11:15	시미즈 스미코 전 사민당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및 온나노 신부와 인터뷰
	16: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의견교환 모임
	18: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교류회
8/24(금)	10:00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13:40	카나가와네트워크와 간담회 및 활동 현장시찰
	18:30	일본 여성의원과 간담회
8/25(토)	10:00	아오야마 대학 송연옥 교수 만남

다. 미국 방문

- 구성: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기간: 2007년 9월 17일(월)-21일(금)
- 숙소: 해링턴 호텔(워싱턴 D.C. 소재)

○ 일정

일정	프로그램
9월 18일 (화)	9:30am 카린 리의 브리핑,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11:00am 한국경제연구소 방문
	1:00pm 워싱턴주 상원의원 마리아 칸트웰의 보좌관 Jonathan Hale 방문
	1:45pm 아칸소주 상원의원 브란세 랑컨(Blanche Lincoln)의 보좌관 테드 세라피니(Ted Serafini) 방문
	4:30pm 카롤 요스트 아시아재단 여성세력화프로그램 국장과 간담회
	7:00pm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모임
9월 19일 (수)	9:30am 텍사스주 상원의원 Kay Bailey Hutchison의 Colby Miller 방문
	10:15am 워싱턴주 상원의원 Patty Murray의 Andrew Rowe 방문
	11am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의 Rich Harper 방문
	11:45am 뉴욕 상원의원 Clinton의 보좌관 Ann Gavaghan 방문
	1:00pm 뉴욕 하원의원 Nita Rowey 방문
	2pm 뉴욕 하원의원 Vito Fossella의 Charles W.Estoff 방문
	3pm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Lois Capps의 Michelle Levy-Benitez 방문
	4pm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사무실 방문
9월 20일 (목)	4:40pm 코드핑크 활동가집 방문
	10:30am 칼라 코펠 Inclusive Security와 만남
	11:30 Peace x Peace 담당자와 만남
	12pm Annabel Park 등 재미한국인과 점심
	2:15pm 일리노이 하원의원 잔 쉬아코브스키 방문
	4pm 미네소타 하원의원 베티 맥코럼 방문
	5:30pm 월프 워싱턴지부 노안 드레이크와 대화
	6:30pm 데나 메리엄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과 대화

라. 러시아 방문

○ 구성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기간

10월24일(수)~10월27일(토)

○ 일정

일정	프로그램	
10/25(목)	11:00	러시아 여성연합 방문 및 간담회
	19:00	수슬리나 모스크바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면담
10/26(금)	11:30	러시아 평화재단 방문 및 간담회
	16:00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 방문 및 간담회

5) 평가-성과 및 과제

- (1) 각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여성평화역량 강화에 기여
- (2) 국내 네트워크(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를 통해 네트워크 토대 마련함.
- (3) 동북아 체제의 여성들 사이에 평화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4) 방문 각국 여성/여성단체에 유엔 결의안 1325에 입각한 여성입장선언을 전달하고 한반도, 여성6자회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냄.
- (5) 각국 여성단체/여성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임.
- (6) 글로벌 여성 평화 리더십 함양 강화의 필요성 인식.
- (7) 각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
- (8) 국내외 네트워크 원활한 소통 필요.
- (9) '2008, 여성6자회담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조직 필요.
- (10) 동북아와 한반도 현실 분석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비전과 정책 연구 필요.

I I. 프로그램 개괄

1. 프로그램명

‘2008, 여성6자회담’ 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단체 네트워크 추진

2. 방문목적

- 1)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를 위한 여성의 참여기회 및 역할을 확대한다.
-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성 활동 및 청사진을 마련한다.
- 3) 6자회담 개최국의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화해자 평화형성자로서의 역할을 갖게 한다.

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과 중국 여성의 소통

② 동북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 추진

③ 2008 여성6자회담 제안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1)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과 중국 여성의 소통

동북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지 경험, 냉전이후 진영 간 대립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 소통의 부재를 겪어왔다.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과 중국여성 사이에 연대 경험은 부족하다.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시아 전환기에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중국방문은 한국과 중국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와 신뢰, 자매애와 협력을 쌓을 수 기회이다. 중국 방문은 한국여성의 제안을 중국 여성에게 전하고 중국여성들이 고려하고 있는 평화와 여성활동 관련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2) 동북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 추진

동북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지 경험, 냉전이후 진영 간 대립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 소통의 부재를 겪어왔다.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시아 전환기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와 신

되, 자매애와 협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가 필요하다. 중국여성단체를 방문해 중국여성의 현황과 단체 활동을 이해하고, 한국여성단체의 활동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의 입장을 전달하며 동북아시아 여성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2008 여성6자회담 제안

평화여성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여민회 등 여성단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높이고 △동아시아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 그리고 체제·문화의 차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들의 만남의 장(場)을 마련하고 △ 한반도/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비전(vision)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에 여성6자회담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방문은 중국여성단체에게 여성6자회담에 대한 관심 제고와 내년 행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데 있다.

3. 방문 준비 과정

1) 국내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1) 프로젝트 지원 및 실무담당 구성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조영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전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

변숙진(평화여성회 간사)

(2) 자문위원 구성

북한: 김귀옥(한성대), 박순성(동국대), 신호숙(북한대학원 겸임교수), 윤덕희(명지대), 이금순(통일교육원), 이명자(동국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미국: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박건영(카톨릭대), James Reilly(AFSC 동아시아 담당 - 프로그램 지원)

러시아: 강윤희(국민대), 백준기(한신대 교수)

일 본: 정미혜(국민대), 김지연(이대)

중 국: 이정남(고대평화연구소), 최지영(한림대 국제대학원대)

(3) 프로젝트 관련 자문회의

- 일시: 2007년 3월 30일(금) 오후 4시
- 장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참가자: 윤덕희, 이우영, 이금순, 최지영, 이정남, 강윤희,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 논의: 자문위 역할/제언/협력(여성입장문서 정립 지원, 각국 상황 정보 공유, 외국 단체와 협력 지원 등)

(4)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 1차 회의

- 일시: 2007년 4월 13일(금) 오전 10시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문숙(교회여성연합회),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평화여성회)
- 논의: 국내네트워크(네트워크명칭, 국회의원 참여여부, 자문위원 문제)
국제네트워크(방문일정, 방문단체 및 정책결정자 관련)
전체일정 및 역할 분담

(5) 여성6자회담 관련 내부 워크샵 보고

- 일시: 2007년 5월 2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정현백 대표 연구실
- 참석: 정현백, 이문숙, 김정수, 조영희, 정경란
- 논의: 여성6자회담의 목표 정립, 방문단 구성, 여성입장문서, 5월23일 워크샵 관련 등

(6)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 취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기념 및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 문서 정립을 위한 공개 워크샵
- 일시: 2007년 5월 22일(화) 오후 3시30분

- 장소: 성가수녀원
- 주최: 평화여성회
- 주관: 평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석: 일반시민, 단체활동가, 언론사 관계자 등 25여명
- 주제: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 관련 문건은 자료집 IV 문건모음에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의 경우 이후에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문서로 정리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는 자료집Ⅲ에 있습니다.

<발표>

- 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 ②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실천하는 공동체 사회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③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7) “2008, 여성6자회담 추진 활동 및 향후 전망” (2차 워크숍)

- 일시 : 2007년 12월14일(금) 오후 3시
-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의실
- 프로그램 (사회: 조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보고> ‘2008, 여성 6자회담을 위한 동북아여성네트워크 추진 활동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발표>

- 가. 2008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
- 나. 동북아여성평화회의-‘2008, 여성6자회담 추진 과제와 전망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다. 전체토론

(8) 한국여성평화 방문단 구성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한국 여

성단체 대표와 한국여성의원으로 방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

- ① 일본 -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안인숙(대전여민회 부장), 이미경(열린우리당 의원)
- ② 중국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심영희(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한양대 교수), 정경란(평화여성회),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
- ③ 미국 -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④ 러시아-조영희(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한정숙(평화여성회 이사)

2) 국제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관련 정보 자문단과 재외 동포들의 정보 제공 6자회담 준비를 위한 동북아시아 여성단체 방문과 관련하여 한국방문단 이름을 한국여성평화방문단으로 명칭
- * 이메일과 전화를 통한 소통

(1) 일본

- ① 일본 코디네이터와 만남
 - 일시: 2007년 5월 19일(토) 낮 12시
 - 장소: 지리산
 - 참가자: 정경란(평화여성회), 손명수(재일동포 활동가)
 - 내용: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 방문 코디네이터로 손명수씨가 하기로 함.
 - 사업 경과보고 및 방문일정 공유
 - 일본단체와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 교환
 - 향후 사업관련 의견 교환
- ② 일본 여성단체 및 여성의원 연락
 - Feminist 의원 연맹-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 방문 지원 결정

(2) 중국

중국 여성단체, 여성전문가, 평화관련 단체 수집(연변대 김화선 교수 등)

중국부녀연맹 방문 공문 발송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공문 발송 및 방문 일정 확정

통역자가 중국여성단체(반가정폭력 네트워크, 북경홍풍부녀심리자문센터) 방문 섭외

(3) 미국

미국 코디네이터와 만남

○ 일시: 5월14일(월) 오후 4시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가자: 정경란(평화여성회), James Reilly(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East Asia Affairs)

○ 내용: 미국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미국 워싱턴지부 사무실에서 미국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방문 관련 코디네이터하기로 결정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1917년 조직되고 1947년 노벨평화상 수상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arries out service, development, social justice, and peace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Founded by Quakers in 1917 to provide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an opportunity to aid civilian war victims, AFSC's work attracts the support and partnership of people of many races, religions, and cultures.

AFSC's work is based on the Quaker belief in the worth of every person and faith in the power of love to overcome violence and injustice. The organization's mission and achievements won worldwide recognition in 1947 when it accepted the Nobel Peace Prize with the British Friends Service Council on behalf of all Quakers.

The AFSC is directed by a Quaker board and staffed by Quakers and other people of faith who share the Friends' desir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4) 러시아

정보수집(신효숙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백준기 교수 지원)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형성 관련 단체 연락

4. 4개국 방문 보고

1) 중국

(1) 방문단 구성

* 대표단:

심영희(단장, 평화여성회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양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통역: 임우경(북경대학 중문계 박사후), 김경옥(북경대학 사회학계 박사연구생)

(2) 준비과정

① 1차 워크샵

○ 일시: 2007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강사: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가자: 심영희(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한양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문성미(열린우리당 이경숙 국회의원 보좌관),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내용 :

가. 강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세와 중국의 북한문제”

나. 중국팀 점검

중국방문일정점검/ 단장 문제/ 입장문서 점검

② 2차 워크숍

- 일시: 2007년 7월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평화여성회 교육장
- 참가자: 심영희(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한양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
- 논의: 방문일정 및 각 방문단체 소개/ 6자회담 및 중국여성 관계 자료 공유/ 여성입장문서 내용 검토 등

(3) 중국 방문단 활동내용

중국방문

- 기간 : 7월15일(일)~7월18일(수)
- 장소 : 중국 북경
- 숙소: Jinguo Garden Hotel
- 일정

일정		프로그램
7/15(일)	행사 프로그램 점검회의	
7/16(월)	10:00	중화전국부녀연합회(약칭:부련)와의 간담회
	12:00	부련초청 오찬
	14:00	홍콩부녀심리자문센터 방문
7/17(화)	10: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 방문
	12: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와 함께 점심
	14:00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임원과 간담회
7/18(수)	10:00	베이징대학교 부녀연구중심 부소장과 간담회

①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약칭 : 부련)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 7월16일(월) 오전10시

○ 장소 : 부련 사무실 및 점심식사(부련 호텔 식당)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부련 Ms. Zou Xiaoqiao(국제부장), Lu Yamin(국제부 아시아부장),

Liu Ying(아시아부 담당) 외 1명

○ 논의내용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 2008 여성6자회담 설명 및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의 제안서 전달

나. 부련소개

- 물권법등 여성권리보호활동,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소액대출,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공유

- 6자회담 과정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한 중요성

- 군위안부 문제, 영토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인식 공유 및 여성들의 상호이해의 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의 필요성

라. 부련과 조선민주여성동맹과 관계

- 격년마다 상호방문을 통한 연대활동. 여맹이 부련 방문했을 때 부련이 하고 있는 '무담보소액대출'을 소개함.

마. 부련과의 차기 만남 추진

② 북경홍평여성심리상담센터(약칭 : 홍평)

○ 일시 : 7월16일(월) 오후2시 ○ 센터 사무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 홍평 주임 : 호지밍

○ 논의내용 :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나. 센터의 규모 및 사업내용 설명

- 성희롱 실태조사

- 상담활동 : 가정폭력 상담, 법률상담, 노인상담, 혼인상담 등

- 가정폭력과 관련한 대응 활동 (중국의 경우 혼인법은 있지만 반가정폭력법은 없음)

③ 중국법학회 가정폭력반대네트워크/연구센터 (약칭 : 반가폭)

○ 일시 : 7월17일(화) 오전 10시 ○ 반가폭 사무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반가폭 활동가 6명

○ 논의내용 :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나. 반가폭 활동가 소개 및 반가폭의 규모 및 사업내용 소개

- 반가폭은 2000년도에 설립된 전국적인 규모의 회원제 조직. 개인회원은 약 100여명 단체회원은 50여개임. 전국적으로 가정폭력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활동으로는 크게 △입법활동 참여 △가정폭력반대 활동(동네, 지역사회, 기업)과 가정폭력 개입 및 예방△공중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법 건의안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입법과정이 7-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

- 국제연합(UN)에 보고하는 Country Report에 반가폭이 제공한 내용을 개재할 정도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단체임

- 성희롱관련 사법해석에 관한 자료집을 제출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사하고 있음.

다. 가정폭력 발생 시 개입방법

- 가정폭력반대 단체와 지방경찰, 사법 및 의료 기관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개입

라. 정부가 가정폭력의 개념을 인정하며 단체 활동을 인정하게 된 계기 설명

-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때 가정폭력반대의 내용이 북경행동강령의 하나로 들어가고, 이에 따라 이 운동을 정부가 승인.

④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 일시 : 7월17일(화) 오후 2시

○ 장소 : 북경 완소호텔 회의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Mme. Huan Guoying(전임 부주석)

Mr. Niu Qiang(사무총장)

Mr. Shen Fang

○ 내용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나. 6자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한 역할 공유

다. 여성6자회담 설명 및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에서 적극적인 관심 표명

라.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활동 소개

- 평화군축인민협회는 1985년도에 설립되어 전쟁 반대 및 핵무기를 비롯한 대규모 대량살상 무기를 반대함.
- 국가 간 분쟁을 폭력적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평화와 정치적 해결을 촉구 하며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그 활동 목적이 있음.
- 단체회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전국부련, 공산주의청년단, 노조, 종교단체, 과학협회, 문예, 작가협회 등이 가입되어 있음. 회장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은 여성임. 현재 13명이 부회장으로 있음.
- 국제청소년 평화친선모임 협조,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도행사 참여, 평화와 군축세미나 진행 등
- 국제적으로 평화적 핵에너지는 찬성하지만 핵무기 반대
- 6자회담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신뢰확보가 중요함.

⑤ 북경대학 부녀문제연구센터

○ 일시 : 7 월17일 오전 10시

○ 장소 : 북경대 식당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 연구센터 부주석 왕춘매 교수

○ 내용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나. 중국의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 및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문제 등 설명

-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실업자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음.
-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과거 대식당을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남녀가 분담함.
- 부녀권익문제, 가정폭력문제 등이 현재 주요 이슈임

다. 북경대 여성센터의 사업내용

- 매년 한·중 학술회의의 진행 및 1년에 4차례 정기간행물 발행

라. 중국 대학의 여성연구센터의 현황

- 대학 내의 여성연구센터는 천진사범대, 절강대, 하남의 정주대 등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대학에 있음.

(5) 자료- 방문단체 소개

번역: 김경옥(북경대학 사회학계 박사연구생)

중화전국부녀연합회

(中華全國婦女聯合會 ; All China Women's Federation)

www.women.org.cn/quanguofulian

- 당 지도 하의 여성대중조직(총공회,공청단과 함께 3대 '사회군중단체')
- 95세계여성대회 이후 관방NGO, 중국 대표여성NGO로 지칭하기도 함.
- 주식:
 - 구시우리엔(顧秀蓮)-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부위원장.
 - 73-82 국가계획위부주임 및 당조성원, 국가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82-89 강소성 당위원회 부서기, 강소성 성장검 성체제개혁위원회 주임. 89-98년 화공부부장, 당조서기. 98-02 전국부련당조 서기, 부주석 겸 서기처 제1서기. 02년 전국부련 부주석,서기처 제1서기. 03년 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
- 연혁 :
 - 1949년 3월 해방구 부녀운동위원회와 여성간부, 국민당통치구 민족주의 좌파 여성활동가 및 단체 등이 연합건립한 전국성 부녀대표조직이자 중국공산당 영향 하의 민족통전조직. 초기 중화민주부녀연합회로 명명.
 - 1957년 3차 전국부녀대표대회에서 중화부녀연합회로 개칭.
 - 문혁시기 활동중단.
 - 78년 4차 대회 개회로 전국부련 기능 회복.
 - 88년 6차 대회를 기점으로 권익수호와 대표기능을 장정에 추가
 - 기본직능: ""여성권익을 대표, 수호하며, 남녀평등을 촉진""
- 부련조직체계 :
 - 지방조직: 전국 각 지역 행정급별에 따른 5급층차부련과 각급 부녀대표

단체회원: 전국총공회여직공위원회, 여성기업가협회, YWCA, 여법관협회
등등

○ 전국부련구조 :

기관단위: 판공청(사무국)/조직(연락)부/선전부/부녀발전부/권익부/아동공
작부/국제연락부/기관당위원회/국무원부녀아동공작위원회 사무실 등등
부서

직속단위: 중국부녀아동사업발전센터/중국아동소년기금/중국아동센터/
<중국부녀보>사/중국부녀출판사/<중국부녀>잡지사/중국부녀발전기금회
/중화여자학원/전국부련 부녀연구소 등등

북경홍평여성심리상담센터

(北京紅楓婦女心理諮詢服務中心 Maple Women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www.maple.org.cn

○ 여성민간NGO

○ 대표소개 :

왕싱취엔 (王行娟) : <중국청년보>, 북경출판사 등 책임편집자로 근무 후
퇴직.

○ 단체목표: 사회성별평등 촉진과 남녀협력자관계 및 여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천

○ 단체연혁

1988년 왕싱취엔(王行娟) 및 기자, 출판인 등 주도로 개혁시기
여성문제연구를 위한 민간여성연구조직 발기. 관리과학원부녀연구소로
존재.

1992년 중국최초의 여성핫라인개통

1995년 홍평여성심리상담센터로 개명.

1996 공상국 등록의 독립법인.

○ 활동영역 :

여성문제와 대책연구 : 성희롱, 가정폭력, 단친가족 및 여성취업

실천활동 : 여성핫라인 및 방문상담과 단친가족 지원,

○ 지역사회 :

1. 2001-2005 천진부련과 협력 하에 일부 지역 내 '가족문제에 관한 지역사회간여시범프로젝트'를 진행. 지역사회 내 취약여성집단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네트워크 건설을 도모. 이와 함께 혼인학교, 젠더의식교육, 남녀평등혼인관념배양교육 진행.
2. 2004-2005북경부련과 협력 하에 일부 지역 내 단친가족의 심리상담을 위한 활동과 상호지원조직 등을 조직.

중국법학회 가정폭력반대네트워크/연구센터

(中國法學會反對家庭暴力網絡/研究中心 :

Network/Research Center for Combating Domestic Violence of China Law Society)

www.stopdv.org.cn

○ 여성민간NGO

- 2000.6-2003.8 학계와 법조계, 부녀공작자와 활동가 및 단체들의 연합하에 진행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반대 대책연구와 간여' 프로젝트 (반가폭)의 연장.

○ 주관단위 : 중국법학회

○ 대표소개:

이사회 주석-천밍시아(陳明俠) : 법학회혼인법학 연구회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사회 부주석-리홍타오(李洪濤) : 중화여자학원 도서관관장

○ 반가폭프로젝트 활동개요

가정폭력이론연구와 개입활동 : 이론연구팀, 농촌시범지역과 도시시범 지역, 의료시범기관 등

가정폭력반대 여론확대와 정보교류

네트워크 성원단위 및 프로젝트 참여자를 위한 젠더교육

○ 반가폭네트워크 목표

가정폭력관련 국가와 지방입법 추동

기구간 합작의 반가폭시범지역 공고화 및 중국 지역사회의 반가폭관련

종합간여모델의 지속적 개선

○ 반가폭 민간네트워크와 자료정보센터 확대 및 발전

○ 반가폭네트워크활동 성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가정폭력방지법> 건의안 제출(2003)

반가폭 민간네트워크 및 개방자료실 설립

반가폭 도시, 농촌, 의료의 종합시범지역 건설

가정폭력연구성과 및 교육교재 출판

북경대 부녀문제연구센터

(北京大學中外婦女問題研究中心 ; Women's Studies Center of Peking University)

www.pku.edu.cn/academic/wsc

○ 1990년 역사과, 영문과, 사학과 여교수 중심으로 설립.

○ 주관단위 : 북경대학교

○ 센터대표 :

부주임 : 타오지에(陶洁) / 왕춘메이(王春梅) / 웨이귀잉(魏國英)

○ 여성학기본이론, 성별사회학, 부녀와 경제발전, 부녀법학, 여성교육과 여성심리, 여성인구, 여성건강, 부녀와 환경, 중외여성문학, 중국부녀사, 여성 현실문제 조사연구

○ 1998년부터 사회학과와 연합으로 여성학방향 석사연구생 모집, 2006년 전국최초 여성학 석사과정개설.

○ 연구위원 49명 중 교수연구원 25명, 부교수 연구원 19명 및 국내외 부녀연구 전문가를 특별연구원으로 초빙.

○ 학과건설위원회와 대외교류와 협력위원회 등 운영.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中國人民爭取和平與裁軍協會)

- 1985년 6월 관련 인민단체와 각계 유명인사 발기 설립한 전국성 민간평화단체
- 활동목표: "세계각국 인민과 함께 세계평화, 군축 및 핵무기의 전면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쟁취하며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세계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표 :
- 주석 : 허루리(何魯麗)-57-84년 북경시아동병원 의사.84-88년 북경시 서성구 부구장. 88-96년 북경시부시장.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민혁) 중앙부주석. 1996년 이후 전국정협부주석, 민혁중앙주석. 199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 7차,8차 전국정협 상무위원.
- 98년 현재 90개 국가, 300여개 평화조직 및 유엔내 국제평화및 군축단체와 연락. 국내적으로 관련단위와 10차 국제과학과 평화주간활동을 전개

2) 일본

(1) 방문단 구성

*대표단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의원(민주신당 최고위원)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안인숙(대전여민회 부장)

* 통역: 금령화, 지원:김봉양(재일청년연합 대표)

(2) 준비과정

① 1차 워크숍

○ 일시: 2007년 7월11일(수) 낮 1시 ○ 장소: 평화여성회

○ 참가자: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김정수, 정경란, 김현희, 변숙진 (평화여성회)

안인숙 (대전여민회), 이기호(성공회대)

○ 내용

가. 강의: 이기호(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부소장)

나. 일본팀 점검

일본방문일정 점검/ 6자회담 관련 자료 검토/ 일본단체들과 논의할 사안
점검

② 2차 워크숍

○ 일시: 2007년 8월 3일(금) 3시30분 ○ 장소: 평화여성회

○ 참석자: 정현백(여연), 김정수, 정경란 (평화여성회) 안인숙 (대전여민회),

최문성미(이미경 의원 보좌관)

○ 내용

가. 강의: 남기정 교수(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참의원 선거 결과와 아베정권의 향배/북일관계/일본의 6자회담에 대한 입
장 등등

나. 일본팀 점검

(3) 방문단 활동내용

일본 일정

- 기간: 2007년 8월 22일(수)-25일(토) ○ 숙소: 시나가와 프린스 호텔
- 일정

일정		프로그램
8/22(수)	17:30	피스보트 방문 및 간담회
8/23(목)	11:15	시미즈 스미코 전 사민당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및 온나노 신문과 인터뷰
	16: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의견교환 모임
	18: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교류회
8/24(금)	10:00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13:40	카나가와네트워크와 간담회 및 활동 현장시찰
	18:30	일본 여성의원과 간담회
8/25(토)	10:00	아오야마 대학 송연옥 교수 만남

① 피스보트

- 일시 : 8월22일(수) 오후 5시30분
- 장소 : 피스보트 사무실 및 자원봉사센터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마리 쿠시부치(피스보트 공동대표), 노히라 지구대학 담당자 운영위원, 조진혜 활동가, 요시오카 텍츠에

○ 논의내용

-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 나. 피스보트의 활동 소개 및 일본 정치현실 소개
 -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은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일정상화가 어렵다.
(일부 민주당의원 따로 해결 가능 주장)

- 사민당과 공산당은 북일관계 정상화해야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봄

다.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

- 일본내부에서 아베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서 민주당이 승리.
- 우익반대세력은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자주방어를 해서 미국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고자 함. 이들은 동아시아공동체보다 일본이 세계 속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

라. 국제헌법9조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개최 설명

마. 여성들이 원하는 대안적인 평화세상 논의 필요

바. GPPAC 활동 소개-Global Article 9 Conference 소개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안적인 모색 필요 공감

** 피스보트: 1983년에 설립한 일본에 본부가 있는 국제NGO.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3개월간의 세계를 향해하며 지구대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재단과 함께 peace and green boat를 함께 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을 돌고 있다.

②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 일시: 8월 23일(목) 11:30 ○ 장소: 일본 의회 건물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시미즈 스미코, 사카모토 요코(온나노 신문 편집장)

○ 논의내용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소개 및 방문이유 소개

- 여성6자회담은 좋은 아이디어임. 일본사회에서는 여성단체 뿐 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6자회담과 남북한 화해문제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고 6자회담의 개최 이유를 잘 모르는데 한국 여성들이 여성6자회담을 제기한 것에 감사.
- 여성들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의 정치의식, 해결능력을 고려해 여성6자회담 개최는 큰 의미가 있음.
- 2008년 상반기에 여성6자회담을 위한 6개국 여성 대표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의제, 명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

- [온나노 신문(여성의 신문)]편집장 사카모토 요코씨가 한국여성리더 방문단을 취재 및 인터뷰.

③ 일본 페미니스트 의원 연맹 및 여성단체 대표와 간담회 및 교류회

- 일시: 8월 23일(목) 오후 4시 30분-8시 30분
- 장소: 여성과 직업 미래관
- 협력: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일본측: 세노 키요(도쿄 아라카와구의회의원,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 공동대표, 민주당), 키무라 타미코(전 도쿄 분쿄구의회의원, 페미니스트의원연맹 국제담당), 타카하시 블랙슨 쿠미코(사이타마현 사야마시의회 의원, 페미니스트 의원연맹 국제담당), 칸도 아키코(도쿄 코가네이시의회의원, 녹색테이블), 수구로나오(도쿄 스기나미구의회의원, 녹색테이블), 사토 요우코(원 카나가와현의회의원,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의회 의원,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 전 공동대표),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의원), 고이즈미 히코또(조선여성과 연합하는 모임), 사카모토 요우코(I여성회의 사무국장, 온나노 신문 편집장), 사꾸마 히로코·다카무라 에이코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 치바현, 로리에 나마에(일본여성단체연합), 에이코(신일본 부인의 모임), 타나카 카즈코씨(도쿄 분쿄구의회의원, 베이징JAC대표), 나와 마사야(아시아여성정보센터), 츠키나미코(녹색테이블), 금령하씨(통역), 김봉양(재일청년회)

사회: 금령하, 세노 키요

- 인사말씀: 세노 키요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 소개, 한국 여성운동의 성과와 일본 여성 풀뿌리운동의 성과가 합쳐져 한일여성 모임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
- 한국측 참가자 소개/ 일본측 참가자 소개
- 한국측 방문 목적 설명
- 일본측
- 각 단체에서 온 대표들이 단체 활동 소개(자료-방문단체 소개 참조) 및 여성 6자회담 관심 표명 및 북한에 대한 일본인의 이미지 설명, 여성들간의 연대 모색 논의.

④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 의원과 간담회

- 일시: 8월 24일(금) 오전 10시
- 장소: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 의원 사무실
- 참석: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의원, 금령화, 김봉양

**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의원: 2007년 7.29선거로 100만표 이상 획득한 도쿄도 최고 득표자로서 첫당선됨. 대리인운동으로 유명한 도쿄생활자 네트워크 대표, 도쿄도 의회의원을 거쳐, 민주당과 생활자네트가 정치계약을 맺어 국회진출. 민주당의원

○ 논의 내용

한국평화방문단

- 한반도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 소개
- 6자회담의 성공적 진전과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소개
-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 정부의 참여가 중요하고 아베 정부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민주당이 역할해 줄 것을 요청
-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북한의 변화 설명, 북핵문제 해결과 북일 관계 정상화 공동 추진 촉구

오가와라 의원

- 젊은 세대, 여성의원들 사이에 진심어린 만남을 기대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를 확인함.
-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때 전략적으로 2명중 1명을 여성후보로 추천하여 많은 여성후보가 당선됨.
- 정치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
- 평화 관련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다양한 정치이슈를 다룰 수 있으므로 평화, 여성, 노인 등 여러 이슈를 이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11:40--오가와라 의원과 함께 중식

⑤ 가나카와네트워크운동 방문

○ 일시 : 8월 24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가나카와현 아쓰기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마타키 쿄우코(전 카나카와현의회의원), 금령화, 김봉양

** 마타키 쿄우코씨는 일본에서 대리인운동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여성리더임. 이번 참의원선거에서도 생협이나 Workers Corrective를 핵심조직으로 하는 대리인운동단체들이 민주당후보들과 정치계약(평화헌법 유지등)을 맺어 당선시켰음.

○ 방문내용

- 의원 활동 위주가 아닌 시민정치, 풀뿌리가 중요함. 시민운동과 직업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지센터를 운영. 복지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정치과제로 만들어감. 일본의 NPO활동은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함.
- 노인복지센터(데이서비스센터), 캐리조이, 포포로, 보육시설, 재활용가게 방문

* 캐리조이(Carry Joy) : 데이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차량 지원하는 NPO법인. 복지유상운송이라고 함. 캐리조이 소유차도 있으며 봉사자 자신의 차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약간의 이용료를 내는 것이 특징임. 택시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캐리조이를 이용함.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불법이었지만 NPO법인을 만든 이후에 정치단체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법을 만들.

* 포포로 : 그룹홈.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혼자 살기 싫은 사람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생활하는 시설임. 시내 중심지에 있는 복지시설 건설 필요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NPO법인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설립했음.

* RESHOP : 재활용나눔가게. 일본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수탈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가게 나온 수익금을 동아시아 지역에 다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음. 재활용을 통해 일상의 평화, 동아시아 평화를 실천.

⑥ 일본 국회의원과 여성지도자와 간담회

○ 일시: 8월2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여성과 직업의 미래관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일본팀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참의원의원), 민주당 코미야마 요우코 중의원 의원(여성부장), 히구치 케이코씨(평론가, 여성리더), 호리구치 마사코 의사(성과 건강을 위한 여성전문가모임 회장, 산부인과 의사, 헌법9조를 지키는 의사모임 공동대표), 세노 키요, 기무라 타미코(페미니스트 의원 연맹), 금령화, 김봉양

○ 논의내용 :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방문목적 소개

나. 민주당 활동소개

다. 사민당 활동 소개

라. 북한 위협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헌법 개악 추구.

마. 평화와 남녀 평등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쉽지가 않음.

비. 세계적 차원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빈곤의 여성화와도 연결. 평화-여성빈곤-여성노인의 빈곤-남녀불평등 연결 가능. 여성들의 수명이 긴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사. 동북아여성들 사이에 솔직한 의견 교환이 여성6자회담의 첫걸음, 이를 토대로 진전 희망

⑦ 기무라 타미코 페미니스트 의원연맹과 저녁모임

- 일본 여성운동이 약한 상황에서 여성6자회담만 제안하고 후속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실을 거둘 수 없기에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함

- 일본의 민주화는 일본인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민주화와 정치가 먼 것으로 보고 일상생활 중심의 정치 활동 추구.

⑧ 8월 25일(토) 10시 아오야마 대학 송연옥 교수 만남

(4) 자료- 방문단체 및 국회의원 소개

번역 및 정리 :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방문단체>

■ 전국 Feminist 의원연맹 각 여성의원들 (<http://www.afer.jp/>)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페미니즘에 기초한 정치운동으로서 시민의 활동을 서포트하는 운동체
- 일본의 정책결정의 장소인 의회에 적은 여성 의원을 늘려 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 1992년, 전국의 시민과 의원이 만든 회원조직입니다. 현재 회원 190명.
일본의 지방여성의원네트워크로서 사민당, 공산당, 생활협동조합, 녹색그룹 등의 초당파적인 모임으로 25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1. 현상

2006년 현재, 일본 중의원의 여성비율은 세계 129위. 지방 의회의 여성 의원비율은 7, 9%, 이 또한 선진국 중 최하위일 뿐만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제 3세계의 국가들보다 적은 비율입니다. 성별 역할분담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고, 국정도 지방의 정치도 의회의 9할 이상이 남성의원으로 차지되어 있는 것이, 사회에 다양한 뒤틀림을 낳았습니다. 복지나 자녀 양육지원, 인권이나 환경, 교육, 재정, 도시 계획 등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관여가 너무 적은 것이, 출생을 감소화가 멈추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이나 젠더의 시각을 정확히 가진 여성 의원이 각 의회에서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여성 의원을 40%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어 여성 의원비율의 적은 지역에서의 여론 함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0의회를 없애는 캠페인, 여성 후보·의원의 지원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2명, 제임기는 2년입니다.

2. 활동내용 :

1992년 2월 「전국 페미니스트 의원연맹」 결성

가. 선거 활동

- 여성 0의회(여성의원이 없는 의회)를 없애는 캠페인
- 도의원 선거·중의원, 참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자확대 요청 활동 등
- 나. 이벤트 / 합숙·심포지엄등

3 활동목표

자치단체, 특히 도시와 시골의 여성 0의회를 없애기 위한활동
후보자 발굴,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에 몰두.

각 정당에 대해 할당제 실현 요구

당내의 결정 기구 및 의원의 40%를 여성이 하도록 하는 요청행동

남녀공동참획기본법에 기인해, 남녀 평등정책을 충실하게 하는 활동

여성국회의원을 늘리기 위한 법정비를 지향.

여성의 정치참획을 촉진하는 타단체와 제휴.

여성 의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여성들을 임파워먼트

합숙을 겸한 하계연수를 비롯하여, 강좌, 심포지엄 등을 개최.

여러 외국의 남녀 평등시책을 학습,

■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여성리더들 (<http://www.seikatsusha.net>)

생활자 네트워크는 도쿄 도내 34의 자치단체에 있어, 각각의 지역의 과제에 몰두하는 동시에 시(市)나 구(區)를 넘은 「도쿄 문제」에는 전체로 하여, 로컬 파티로서 도쿄를 「생활의 마을·생활하기 쉬운 마을」로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Ⅰ 3개의 룰

룰 1: 의원은 로테이션

- 생활자 네트워크의 의원은, 최장이라도 3기 12년으로 교대합니다. 의원을 직업화·특권화 하지 않고,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참가의 층을 넓힙니다. 임기를 마친 의원은, 시민정치를 넓히기 위한 활동이나 지역활동 등에, 그 경험을 살립니다.

룰 2: 의원보수는 시민 활동 자금에

- 생활자 네트워크의 활동은 캄파(대중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얻는 활동)로 지탱되어 있습니다. 의원도 보수에 응한 기부(캄파)를 열어, 시민의 정치 활동자금으로 살립니다. 돈의 흐름을 공개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

룰 3 :선거는 전부 손수 손으로

- 선거는, 정치에 참가하는 입구입니다. 모두 돈(캄파)과 지혜나 노력(자원 봉사)을 서로 분담하여 선거를 행합니다.

2 생활의 중심에서의 정책제안

가. 한 마디제안운동

언제라도 어디에서나 한 마디제안. 시민의 발언이 정치를 바꾸는 힘입니다. 생활자 네트워크의 정책은 지역과 생활에서 생겨납니다. 매년, 34의 생활자 네트워크가 행하는 「한 마디제안」 운동에는, 생활 속에서의 불편이나 고민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보도가 좁은, 단차가 많다. 재취직 하려고 하지만 연령제한이 있어 취직할 수 없다

3 조사 활동

수질 조사, 마을 위칭, 공원이나 놀이터, 방치자전거조사등, 생활자의 시각으로 종합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만듭니다. 1998년, 「자녀 양육」 「간호」 「여성과 연금」, 99년에 「아이의 인권」, 2000년에 「여성과 노동」의 조사를 실시, 젠더 자유로운 정책과 「아이의 권리조약」에 따른 정책을 정리함.

④ 미니 포럼

생활의 문제를 혼자서 꺼안지 않고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관련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는 장소·미니 포럼을 엽니다. 생활자 네트워크는 의원과 함께 문제해결의 협조를 합니다.

⑤ 예산제안운동

동경의 예산은 2000년도, 11조 7700억엔. 이 거대한 예산을 이익유도형의 공공사업에 배분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시민정책」을 예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하여 매년, 도쿄 도지사에게 재안을 합니다.

6 시민과 행정의 협의회

시민이 생활 속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거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직접 시민의 의견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생활자 네트워크의 의원이 호소하여 이제까지의 진정, 청원과 같이 일방적으로 행정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하는 의논의 장으로서 시민과 행정의 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자도 참가합니다. 이제까지 실내화학물질오염의 문제나 공해방지법의 개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 카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여성리더들 (<http://www.kgnet.gr.jp>)

1983년에 처음으로 자치단체여성 의원(가나가와현 카와사키시 미야마에쿠)를 탄생시켜, 1984년 7월, 설립한 지역정당입니다. 현재(2004년 7월), 가나가와현 하 19의 시동(市町)에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34명의 여성 의원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은, 시민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마을의 정치에 관계되어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움직여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시민의 정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의 미래 모델을 선구적으로 만들어, 「참가·분권·자치·공개」의 민주주의에 기인해, 「생활자정치」 「참가형 정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정치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정치에 대한 개인기부를 펴는 운동을 의원스스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에 드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신뢰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의원은 2기 8년으로 교대하는 자주 관리 물을 결정해, 누구나가 정치의 역할을 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참가형의 정치 시스템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시민 네트워크 치바현 여성리더들 (<http://www.ken-net.gr.jp>)

치바현에 시민 네트워크가 탄생해 20년. 시민의 정치 단체로서 의원을 보내어 의회·행정에 시민사회의 바람을 불어왔습니다. 이 20년, 세계도 일본도 크게 변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국경을 넘어, 격차가 확장되어, 폭력과 관리의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는 일 방식, 약자가 안심해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지는 공정하고 안심된 사회제도,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민 네트워크는 주최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살려, 지역에 일을, 인간다운 커뮤니티를,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 토대로 하여 지역으로

부터의 평화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녹색 테이블 여성리더들 (<http://www.greens.gr.jp/>)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국적, 성별, 민족, 장애로 차별 당하지 않는 사회, 누구라도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빛나게 살 수 있는 사회,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회가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사회입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국외에서의 경제 격차, 평화의 문제, 동성애자나 소수 민족등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권 등에 대해서 노력하며 몰두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의 공정」 「민간 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녹색의 정치」를 표현하는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녹색당~「정당같지 않는 정당」

「녹색당」은, 환경이나 평화에 몰두하는 시민이 1970년대 경부터 「녹색의 정치」의 실현을 지향해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 온 새로운 정당입니다. 「정당」이라고 해도 시민운동이 기반이고, 집권화·히에라르키화, 효율을 구하는 기존정당과 차이, 공동 대표제, 조직내 민주주의의 철저, 기업현금의 거부, 남녀간의 형평성, 지방주도의 네트워크형조직 등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한 환경의 파괴나 차별의 확대에 대해서, 세계 각지에 펼쳐진 녹색의 정치 세력과 제휴, 협력해 몰두해 갑니다.

■ 신 일본부인 회 (<http://www.shinfujin.gr.jp/>)

신일본부인회는, 1962년 10월 19일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회원 20만명, 회의의 기관지로서 주간의 「신부인신문」을 30만부발행, 월간지『여성&운동』도 발행, 일본에서 가장 큰 개인가맹의 여성 단체가 되었습니다. 신부인은 보다 인간답게 풍부하게 살고 싶은 원하는 여성의 네트워크로, 전국의 직장, 지역, 농촌에 기초조직이 1만 이상 있어, 시구동읍에 880지부, 47도 도부현에 현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자격을 취득해, 유엔 NGO로서, 국제적인 시야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 부인단체연합회(국제민주부인연맹가맹)과 국제부인연락회(일본의 주요 여성단체 41단체가 가맹)의 멤버이며 1955년부터 매년 여름, 수만명 규모로 개최되는 일본 모친대회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일본부인회는, 2005년 11월 5, 6일, 제 22회 전국 대회(2년에 1번)을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약 1100명의 대표가 참가. 다채로운 활동을 교류해, 「헌법 9조는 세계의 보배 생활과 평화 지켜, 여성의 절실한 요구실현으로 폴뿌리의 신부인(新婦人) 큰 비약을」의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1 신일본부인회 「5개의 목적」

- 가. 핵전쟁의 위험에서 여성과 아이의 생명을 지킵니다.
- 나. 헌법개약에 반대, 군국주의부활을 저지합니다.
- 다. 생활의 향상, 여성의 권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 라. 일본의 독립과 민주주의, 여성의 해방을 쟁취합니다.
- 마. 세계의 여성과 손을 이어, 영원한 평화를 세웁니다.

<국회의원>

■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 (참의원의원) <http://www.mizuhoto.org>

프로필

가나카와현 거주

1980년 3월 동경 대학 법학부 졸업

1998년 7월 사민당에서 참의원비례제일위에서 당선

2003년 11월 사민당 당수로 취임. (사민당 가나가와 연합대표를 겸임)

2004년 7월 참의원비례구에 재선. 현재 2기째임

여성의 집 HELP 협력변호사임

국회에서는, 환경·인권·여성·평화를 4개 분야에 폭넓게 활동중.

* 최근에는 나고야 형무소의 수형자에 대한 폭행 사건 ,

초당파에서 성립시킨 domestic·violence 방지법이나 아동 학대방지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있다. 그 외의 주요한 테마는, 부부 별성선택제도입이나 혼외자 차별철폐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의 실현, 자연 에너지 촉진법안, 유사법제반대와 이라크 전쟁 반대등의 평화문제, 도청법폐지 ,

프라이버시 문제, 피구금자·외국인·난민의 인권 옹호 , 비정규고용자의 대우 개선 문제 등.

■ 히구치 케이코씨 (평론가, 여성운동리더)

http://www.sut-tv.com/terakoya/kousi/higuchki_keiko/kouse.htm

■ 민주당 여성부장 코미야마 요코(중의원의원)

<http://www.komiyama-yoko.gr.jp>

1998년 7월 참의원 의원(전국 비례) 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첫 당선

2003년 4월 東京都第6區・世田谷區) 중의원 의원

현재

청소년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연추진의원연맹(초당파) 사무국장 등

정책활동

① 자녀 양육 : 아이가 안심해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활동

② 연금 : 소득비례연금으로 급부액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으로 최저보장, 간호 보험제도가 고루 갖추어 지도록 하는 활동전개 등

③ 남녀공동참여

남녀공동참여사회기본법의 이념에 기인해, 여성도 남성도 개성과 능력을 살려, 싱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등

④ 재정 재건

3년간에 10조엔의 세출 커트, 국채 발행액 30조엔 미만, primary 밸런스 적자의 반감을 실현해, 8년 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

⑤ 외교 : 인접제국과의 신뢰 양성을 도모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지향

⑥ 헌법 :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3개의 기본 원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활동

⑦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추는 활동, 민주주의의 교육을 추진 및 인터넷, 이메일의 활용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미국

- 구성: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기간: 2007년 9월17일(월)-21일(금)
- 숙소: 해링턴 호텔(워싱턴 D.C. 소재)
- 일정

일정		프로그램
9월 18일 (화)	9:30am	카린 리의 브리핑,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11:00am	한국경제연구소 방문
	1:00pm	워싱턴주 상원의원 마리아 칸트웰의 보좌관 Jonathan Hale 방문
	1:45pm	아칸소주 상원의원 브란세 링컨(Blanche Lincoln)의 보좌관 테드 세라피니(Ted Serafini) 방문
	4:30pm	카롤 요스트 아시아재단 여성세력화프로그램 국장과 간담회
	7:00pm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모임
9월 19일 (수)	9:30am	텍사스주 상원의원 Kay Bailey Hutchison의 Colby Miller 방문
	10:15am	워싱턴주 상원의원 Patty Murray의 Andrew Rowe 방문
	11am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의 Rich Harper 방문
	11:45am	뉴욕 상원의원 Clinton의 보좌관 Ann Gavaghan 방문
	1:00pm	뉴욕 하원의원 Nita Rowey 방문
	2pm	뉴욕 하원의원 Vito Fossella의 Charles W.Estoff 방문
	3pm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Lois Capps의 Michelle Levy-Benitez 방문
	4pm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사무실 방문
9월 20일 (목)	4:40pm	코드핑크 활동가집 방문
	10:30am	칼라 코펠 Inclusive Security와 만남
	11:30	Peace x Peace 담당자와 만남
	12pm	Annabel Park 등 재미한국인과 점심
	2:15pm	일리노이 하원의원 잔 쉬아코브스키 방문
	4pm	미네소타 하원의원 베티 맥코럼 방문
	5:30pm	윌프 워싱턴지부 노안 드레이크와 대화
	6:30pm	데나 메리엄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과 대화

(1) 미국 여성의원 사무실 방문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방문목적 소개 및 입장문서 전달

나. 남북여성교류 및 남북관계 현황 소개

- 여성의원 및 의원 보좌관들은 의견을 주로 듣는 입장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된 후에 북한에 대한 테러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음.
- 일리노이 하원의원 잔 쉬아코브스키와 미네소타 하원의원 베티 맥코럼이 가장 관심을 많이 표명한 의원으로서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강조.
- 짧은 시간동안 남북여성교류와 여성6자회담의 의미,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동시 해결 촉구

(2) 미국 여성단체 지도자와 만남

가.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방문목적 소개 및 입장문서 전달

나. 남북여성교류 및 남북관계 현황 소개

- 미국 여성단체의 활동 소개
-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로 함

(3) 미국에서 만난 여성의원과 보좌관, 여성단체 지도자 관련 소개

○ 세부 프로그램¹⁾

2007년 9월 18일(화)

(1) 9:30am 북한전국위원회 사무국장 카린 리 방문

북한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NCNK)는 북한에 관심있는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의 네트워크로 정보 교류모임

(2) 11:00am 한국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방문

소장 잭프리티처드(Jack Pritchard)와 연구원 스코트 램브란트(Scott Rembrandt)와 북핵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 간담회

1) 변숙진 평화여성회 간사가 미국 국회의원 관련 내용을 번역 정리하였다.

(3) 1:00-1:45pm : 조나단 해일과 만남 (마리아 칸트웰 상원 사무실)

Sen. Maria Cantwell

마리아 칸트웰(워싱턴주 민주당 상원의원) 재선(2000)

1958년 10월13일생

마이애미 대학교/학사/공공정책(1980)

경력: 인터넷오디오회사대표, 홍보(PR)컨설턴트

위원회 임무: 상업/과학/운송, 에너지/천연자원, 재정,

인디언문제, 소기업&기업가정신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미국 연방 아-태(준회원), 연방인터넷, 새로운 민주당상원연합, Senate Steel Caucus

(4) 1:45-2:30pm: 태드 세라피니 만남(블랑쉬 링컨의 사무실)

Sen. Blanche Lincoln

블랑쉬 링컨(아칸소주 민주당 상원위원) 재선(1998)

1960년 9월30일생

랜돌프-매이컨 여자대학/학사/생물학(1982)

경력: 로비스트, 국회보좌관/ 현 농촌복지회장

정치이력: U.S. 하원, 1993-97

위원회 임무: 농업/영양&임업, 에너지&천연자원, 재정, Special Aging

직책: 농촌복지회장, 민주당상원선거위원회(여성상원네트워크회장), 민주당정책위원회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국회 채용 연합(Congressional Coalition on Adoption), 상원합의연합, 새로운 민주당상원연합(공동회장), Senate Steel Caucus

(5) 4:30-5:30pm: 캐롤 요스트 만남, 아시아재단/ 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디렉터

www.asiafoundation.org

아시아 지역의 평화적 변형과 발전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로서 거버넌스, 법, 시민사회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 (6) 7:00-9:00pm: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관계자와 간담회
<http://www.naka.org>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NAKA)는 1994년 비영리 추구, 시민권확보와 인권 추구하는 재미동포운동조직.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의 시민권 확보를 지원하고, 동포사회와 타인종과 상호협력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재미동포의 문화와 가치를 개발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9월 19일(수)

- (1) 9:30-10:15am: 콜비 밀러 만남(케이 배일리 허치슨 사무실)

Sen. Kay Bailey Hutchison

케이 배일리 허치슨(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세 번째 당선(1993)

1943년 7월22일생

텍사스대학교 J.D.(1967), B.A.(1992)

경력: 방송기자, 변호사, 은행대표, 사탕회사 사장

정치이력: 텍사스주 하원,1973-76; 국가 안전 운송 이사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1976-78; U.S. 하원으로 공화당에서 임명하러 했음,1982; 텍사스주 재무장관,1991-93

위원회 임무: 세출(Commerce-Justice-Science, 국방, 에너지-물, 노동-보건복지-교육, 군사 건축-재향군인국(간부급멤버), 수송기관-주택도시개발부), 경제/과학&운송기관, 관리&행정(Rules&Administration), 재향군인부(Veterans Affairs)

직책: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유럽 내 안보 및 협력 시위원회, 연방 인터넷, 연방스포츠인, Senate Auto Caucus, Senate National Guard Caucus, 상원 지방 보건 커커스

- (2) 10:15-11:00am: 앤드류 로우 만남(패티 머레이 사무실)

Sen. Patty Murray

패티 머레이(워싱턴주 민주당 상원), 세 번째 당선(1992)

워싱턴 대학교 B.A. 1972

경력: Parenting 수업 강사

정치이력: Shorline 학교 이사회 후보자(1983), Shorline 학교 이사회(1983-89),
워싱턴주 상원(1989-93), U.S. 상원

위원회 임무: 세출(국방, 에너지-물, 재정서비스, Homeland Security, 노동-보
건복지-교육,

군사건설-재향군인국, 운송기관-주택도시개발부(의장)), 예산, 건강/교육/노동
과 연금, Rules&Administration, 재향군인부

직책: 원내총무 대리 or 보좌관(Deputy Whip), 컨퍼런스 간사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연방소방서비스, 연방인터넷, 상원
National Guard, 상원 Steel Caucus

(3) 11:00-11:45am: 리치 하퍼 만남(다이앤 파인스틴 사무실)

Sen. Dianne Feinstein

다이앤 파인스틴(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세 번째 당선(1992)

1933년 6월22일생

스탠포드대학교 A.B. 1955(역사전공)

경력: Civic Board 공무원

정치이력: 수퍼바이저 샌프란시스코 이사회(1970-78), 샌프란시스코 시장 후
보(1971,1975)

샌프란시스코 시장(1978-89), 주지사 민주당 후보(1990)

위원회 임무: 세출(농업, Commerce-Justice-Science, 국방, 에너지-물, 인터넷-
환경(의장), 운송기관-주택도시개발부), 사법부, Rules&Administration(의장),
Select Intelligence, 도서관 연합(의장), 인쇄 연합(부의장)

직책: 민주당 정책 위원회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와인(Congressional Wine Caucus),
Senate Auto Caucus, Senate National Guard Caucus, 상원 새 민주당원 연
합, Senate Rural Health Caucus

(4) 11:45am-12:15pm: 앤 가바한 만남(힐러리 로덤 클린턴 사무실)

Sen. Hillary Rodham Clinton

힐러리 로덤 클린턴(뉴욕주 민주당 상원), 재선(2000)

1947년 10월 26일생

웰슬리 대학 B.A. 1969, 예일 대학교 J.D. 1973

경력: 영부인, 변호사, 로스쿨 교수, 국회 보좌관

정치이력: U.S. 상원

위원회 임무: 군사(Armed Services), 환경&공공사업, 위생/교육/노동&연금, Special Aging

직책: 위원회 지부 부의장, 민주당 운영과 지부 위원회(Democratic Steering and Outreach Committee)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Commission on Security & Cooperation in Europe, Senate Steel Caucus

(5) 1:00-1:30pm:

Rep. Nita M. Lowey

니타 M 로이(뉴욕주 공화당 의원), 10째 당선(1988)

1937년 7월5일생

마운트 홀요크 대학, B.A. 1955-59(정치학)

경력: 연방정부 보좌관, 주부or가정부(homemaker)

정치이력: 뉴욕 연방 보조 비서관, 1985-87

위원회 임무: 세출(Homeland Security, 노동-보건복지-교육, Select Intelligence Oversight, State-Foreign Operations(의장)), Homeland Security

직책: 민주당 의회 캠페인 위원회(명예의장)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알바니아 문제, Congressional Arts Caucus, 국회 생물의학연구, 국회 아동노동 그룹, 국회 소방서비스, Congressional Friends of Animals, 국회 인권, 국회 인터넷, 국회 미아&아동 착취, 국회 미국노령자, 민주당 홈랜드 보호 특별대책본부, 민주당 연구그룹 (대표위원회)(원내총무 대리)

(6) 2:00-2:30pm: 찰스 W 에스토프 만남(비토 포셀라 사무실)

Rep. Vito Fosella

비토 포셀라(뉴욕주 공화당의원), 5번째 당선(1997)

1965년 3월9일 생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B.S. 1987, 포드햄 대학교 J.D. 1993

경력: 매지니먼트 컨설턴트, 변호사

정치이력: 뉴욕시 의회, 1994-97

위원회 임무: 에너지&상업(Energy&Commerce)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한국 커커스(공동의장), 국회 채용 연합
(Congressional Coalition on Adoption)

(7) 3:00-3:30pm: 미첼 레비-베니츠 만남(로이스 캡스 사무실)

Rep. Lois Capps

로이스 캡스(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 5번째 당선(1998)

1938년 1월10일 생

Pacific Lutheran 대학교 B.S. 1959(간호학), 예일 대학교 M.A. 1964(종교학)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M.A. 1990(교육학)

경력: 초등학교 간호사, 컬리지 강사

위원회 임무: 에너지-상업, 천연자원, 수산업/야생생물&해양, 국립공원/숲&
공공지역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공동의장),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준회원), Congressional Arts Caucus, 국회 소방서비스, 국
회 인권, Congressional Rural Caucus, Congressional Wine Caucus, 민주당
홈랜드 보호 특별대책본부, 국토방위&예비병력 구성 국회 멤버 기구
(National Guard&Reserve Components Congressional Members
Organization), 새로운 민주당원 연합

(8) 4:00-5:00pm: 코드 핑크 활동가 방문

www.codepinkalert.org

여성이 주도한 평화와 사회정의 운동 풀뿌리공동체로 부시정권의 '폭력적인'
정치방식에 반대한다. joy&humor 강조.

2007년 9월 20일(목)

- (1) 10:30-11:30am: 칼라 코펠, Initiative for Inclusive Security(Women Waging Peace)대표

www.womenwagingpeace.net

평화프로세스 과정에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를 주창한다. 지속적인 평화 형성은 다양함과 시민이 바탕이 된 접근에 의해서만 성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2) 11:30am-12:30pm: Peace X Peace(Women for Peace와 관련) 스태프 만남

www.peacexpeace.org

세계 도처의 개인들과 여성들의 모임이 연결된 국제적 네트워크. 인터넷을 통해 소통과 상호 지지가 이루어짐. 이방인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가족이 되는 과정을 통해 평화를 키움. 블로그, 뉴스레터 등 제공함.

- (3) 2:15-2:45pm:

Rep. Jan Schakowsky

잔 슈코우스키(일리노이주 민주당의원), 5번째 당선(1998)

1944년 5월26일생

일리노이대학교 B.S. 1965(초등교육)

경력: Senior citizens 그룹 지도자, 소비자 대리인(변호사), 가정주부, 교사

Note: 원내총무 보좌관 장(Chief Deputy Whip)

정치이력: Cook Country Commission 후보자, 1986,

일리노이 하원 1991-99(원내총무, 1994-99)

위원회 임무: 에너지&상업, Select Intelligence

직책: Chief Deputy Whip(원내총무 보좌관 장), 민주당 운영위원회(Region Four-4지역)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부의장),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준회원), Congressional Arts Caucus, 국회 진보 커커스, 민주당 홈랜드 보호 대책본부

- (4) 4:00-4:30pm:

Rep. Betty McCollum

베티 맥컬럼(미네소타주 민주당 의원), 4번째 당선(2000)

1954년 7월12일생

Inver Hills Community College, A.A. 1980, 세인트캐서린 대학, B.A. 1987
(교육학)

경력: 교사, 소매상 판매원

정치이력: 북 세인트 폴 시의회(1987-92), 미네소타 하원(1993-01)

위원회 임무: 세출(노동-보건복지-교육, 주 입법심의회, State-Foreign
Operations), 감시&정부개혁(국가안보&외교문제)

직책: 민주당 국회 캠페인 위원회(지역 모집 의장-regional recruitment
chairwoman)

선출된 Caucus와 소속전문기구: 여성,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준회원), Congressional Arts Caucus, Congressional
Internet Caucus

(5) 5:30-6:30pm: 조안 드레이크(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WILPF)

www.wilpf.org

1915년 1차세계대전중에 설립. 첫 대표는 제인 애덤스. 평화적인 방법으로
군축, 여성인권, 인종과 경제정의, 폭력 종식을 추구하며 평화, 자유,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사회, 심리학적인 여건들을 만들고자 한다.

(6) 6:30-7:30pm: 데나 메리엄(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 설립자)

www.gpiw.org

평화를 만들고 분쟁지역에서 화해의 노력을 모색하고자 모인 여성리더십들
의 국제적, 다종교적 네트워크.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젊은 세대
리더십 양육.

4) 러시아

○ 방문단 구성

* 대표단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통역

○ 기간

10월24일(수)~10월28일(일)

○ 일정

일정	프로그램	
10/25(목)	11:00	러시아 여성연합 방문 및 간담회
	19:00	수슬리나 모스크바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면담
10/26(금)	11:30	러시아 평화재단 방문 및 간담회
	16:00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 방문 및 간담회

(1) 러시아 여성연합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 10월 25일(목)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러시아 여성연합 회의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러시아팀

러시아 여성연합 Gulko Galina(부의장), Galina Mihailovna("여성, 영적 가치, 문화" 프로그램 담당), Irina Alexandrovna(국제 담당), Ludmila Nikolaevna(가족 담당), 前의장

○ 내용 :

- ①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소개, 방문 목적 소개 및 여성6자 회담에 대한 관심 촉구
- ② 러시아 여성연합 소개, 국내외 활동 소개
- ③ 여성 6자 회담에 대한 공감 및 입장문서 전달

※ 러시아 여성연합(Women's Union of Russia) 소개

- 의장 : 라호바 예카테리나 필립포브나

- 전화 : 7-495-650-7409
- 주소 : 모스크바 글리니쉬체프스키 6가 125009
- 홈페이지 : www.wuor.ru
- 조직 : 구 소련 시절 창립되어 부녀동맹으로 활동하다 러시아 여성연합으로 개명, 전국에 100여개의 크고 작은 지부를 가지고 있음, 특히 블라디보스톡의 지부는 중국, 일본, 몽고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 중
- 활동 : 체첸전쟁 부상자들 지원, 러시아 안보와 평화 관련 활동, '깨끗한 지구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 국제 전통 인형 전시회 등 국제교류 활동, '위대한 우정(10년간 지속되는 프로그램명)' 등 문화 예술 교류 활동, UN 여성위원회 참여단체로서 5개 국제기구에 가입(국제민주여성연합, 국제가족계획기구, 국제농촌연합, 국제여성회의, 구 소련 국제여성연합)하여 활동(이중 파리에 대표부가 있는 국제민주여성연합에 북한이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여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이 원하면 연계하여 줄 수 있다 함)

(2) Svetlana S. Suslina 교수 면담 및 간담회

-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 오후 9시 30분
- 장소 : 모스크바 한식당 신라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러시아팀
수슬리나 교수(경제학 박사, 모스크바대 극동연구소 한국학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외 1명

○ 내용 :

- 1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소개, 방문 목적 소개 및 여성6자 회담에 대한 관심 촉구
- 2 러시아 내에서 극동지역, 특히 한반도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 정도 설명, 러시아의 여성경제활동의 변화상황 및 배경 설명, 남북경협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역설

(3) 러시아 평화재단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 10월 26일(금)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장소 : 러시아 평화재단 Elena V. Sutormina(제1부의장) 집무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러시아팀, 러시아 평화재단 Elena V. Sutormina (제1부의장)

○ 내용 :

- 1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소개, 방문 목적 소개 및 여성6자 회담에 대한 관심 촉구
- 2 러시아 평화재단 소개, 활동 소개
- 3 여성 6자 회담에 대한 공감 및 입장문서 전달

※ 러시아 평화재단(International Public Fund Russian Peace Foundation) 소개

- 전화 : 7-495-637-7544
- 주소 : 모스크바 프레치스첸카 10가 2층 119034
- 홈페이지 : www.peacefond.ru
- 조직 : 구 소련시절인 1961년 창립

러시아 전역에 적게는 2~3인으로부터 수백인의 회원을 가진 국내 49개 지부와 캐나다, 불가리아, 미국 등에 해외 지부를 두고, 2004년 UN 과 EU에 회원자격 얻어 UN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 역할을 함

- 활동 : 고아, 장애우들을 위한 국가간 교환 봉사활동, 전쟁으로 인한 실종자 찾기 활동, 연말연시에는 불우아동을 위한 선물 전달 활동(2007년 초 3만 여명의 아동에게 전달), 매년 평화캠프 개최 등 (이중 하바로프스키 지역에서 북한과 의료활동 등의 공동 사업이 있다 함)
- 성매매, 가정폭력, 마약 등에 저항하는 활동을 함
- 92년 이후 정부 지원 받지 못하면서 자원봉사나 우표, 뺏지 등의 판매를 통해 재정을 마련한다 함)

(4) 러시아 어머니회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 10월 26일(금) 오후 4시 ~ 오후 6시 30분
- 장소 :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Union of Committee's Mothers of Russia) 회의실
- 참석 : 한국여성평화방문단 러시아팀,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 로아리아 B. 차베르테(의장)
- 내용 :

- ①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소개, 방문 목적 소개 및 여성6자 회담에 대한 관심 촉구
- ②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 소개, 체첸의 어머니들 활동 소개
- ③ 여성 6자 회담에 대한 공감 및 입장문서 전달

※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Union of Committee's Mothers of Russia) 소개

- 의장 : 로아르드 B. 차베르데
- 전화 : 7-495-129-1277
- 주소 : 모스크바 낙시모브스키아 32가 117218
- 조직 : 구 소련시절 이라크 전쟁 파병반대 행진 등 반전운동과 결합하며 반전 위원회 구성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쟁(체첸전쟁) 개입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됨.
체첸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결합하며 정부와 긴장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눈물난다”고 할 정도로 열악하여 사무실도 협소하고, “기록할 시간이 없이 일이 많다”고 함
조직의 이름에 ‘여성’이 아닌 ‘어머니’인 이유는, 창립 당시 여성단체가 국가기구로서 관변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기피한 때문이고, 또한 “생명을 낳고 돌보는 어머니와 같이 평화를 만들고 돌본다”는 의미라 함
산하에 체첸의 어머니들, 인권단체(이름 : Memorial), 인권센터, 환경단 징병거부자들의 모임 등 수십개의 단체들의 연합단체임
‘러시아 군대노예’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헬싱키 그룹이 수여하는 상 수상
- 활동 : 반전운동, 군대내 인권 활동, 퇴역군인의 연금지급요구 및 지원 활동
체첸전쟁, 아르마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타자흐스탄 내전 등에 개입하여 중재활동
90년 6월~9월 사이, 매일 붉은광장에서 반전 피켓팅
연금문제, 탈영, 징병거부, 군대내 인권 등의 사안으로 연간 50,000여명의 군인 대상 상담활동, 입영 앞둔 군인대상 교육 활동 등

Ⅲ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문서 및 여성6자회담 소개서

1.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입장문서

1) 중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제안

“여성,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만들자.”

2007. 7. 16.

한국 여성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해왔다. 우리의 경험은 평화가 생명이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염원이자 보편적 인간권리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를 성취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의 9.19성명과 2.13합의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동북아시아 정부가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 위주를 탈피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근거한 평화담론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힘에 의한 정치”를 토대로 하는 군사주의적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북한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북미관계 정상화 없이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 해소와 실질적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성취될 평화체제 하에서 정부가 군사동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협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 해결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재일조선인을 통해 겪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뿐 만아니라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분,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증할 뿐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비의 사회보장비 및 교육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

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이어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5년 현재 미국 4782억달러, 중국 1884억달러(추정치), 러시아 644억달러(추정치), 일본 349억달러 한국 234억달러 (2003년 구매력 가격 기준)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한반도 군축을 동반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축은 동북아시아 군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 화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평화형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책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분단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체계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게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 외교, 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협상테이블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30%이상 보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기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여성들에게 아래와 같이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중국여성이 평화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중국여성이 향후 평화, 환경보호,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더욱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3. 중국여성들이 동북아 각국에서 상호군축과정을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4. 우리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실현을 위해 중국여성과 함께 활동하기를 요청한다.
5. 남북한 여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중국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July 16, 2007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In addition, the permanent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reached unti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rmalized. Thu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 in China, \$ 64.4 bil in Russia, \$34.9 bil

in Japan, and \$ 23.4 bil in Korea (based on 2003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and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building of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Women can utilize our unique common bond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lived in different systems and have different thinking. In addition, we will play the role of moderators who can establish common vision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dialogue. Currently no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even in such meetings as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ereby, any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i.e., in the processes of managing, resolving and preventing conflicts. In addition,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Thus affirmative action is needed to grant women an equal opportunity. Specifically, a 30% quota must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Chinese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Chinese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women's rights, and we hope that Chinese women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o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solidarity and active support from Chinese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Chinese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Chinese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Chinese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Chinese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solidarity in Northeast Asia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solidarity,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solidarity,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This solidarity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2) 미국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In addition, the permanent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reached unti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normalized. Thus,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 in China, \$ 64.4 bil in Russia, \$34.9 bil in Japan, and \$ 23.4 bil in Korea (based on 2003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omen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We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building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Currently few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and none are in visible leadership position in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and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Women must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outh Korea, we are demanding that a 30% quota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are asking all countries that we visit to consider such a quota. We would like to ask you to promote the same quota in the United State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American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American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we work together with American women to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cooperation and active support from American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American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and to work for disarmament in the United States.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American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American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6. We hope that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be normalized as soon as possible. We ask the American women to play active role to build reconciliation and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American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cooperation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cooperation,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cooperation,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This cooperation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3) 러시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제안

“여성,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21세기를 만들자.”

2007. 10. 24.

한국 여성들은 지금까지 식민지, 분단, 전쟁, 냉전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해왔다. 우리의 경험은 평화가 생명이며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염원이자 보편적 인간권리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를 성취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의 9.19성명과 2.13합의로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동북아시아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전환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전환기에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동북아시아 정부가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안보 위주를 탈피하고 공존과 화해협력에 근거한 평화담론을 추구하기를 촉구한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각국은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안보의 최고 목표로 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힘에 의한 정치”를 토대로 하는 군사주의적 모델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일방적 신뢰만으로 안보를 성취할 수 없다. 항구적 평화는 상호불신에 입각한 군비경쟁이 아닌 공동의 생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국가들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인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가 아니라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주장한다.

2. 여성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한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성취될 평화체제 하에서 정부는 군사동맹이나 군사력에 의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협상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 해결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재일조선인을 통해 겪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당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절대적 과제이다. 북한과 미국의 핵 뿐 만아니라 한반도에 어떠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분, 사용을 허용치 않는다. 나아가 동북아시아 핵보유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증할 뿐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에 따라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여성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상호군축과 더불어 군사비의 사회보장비 및 교육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무장과 군대의 집중이 심한 지역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으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이어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 2005년 현재 미국 4782억달러, 중국 1884억달러(추정치), 러시아 644억달러(추정치), 일본 349억달러 한국 234억달러 (2003년 구매력 가격 기준)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한반도 군축을 동반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축은 동북아시아 군축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군비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식량 증산, 환경 보호, 교육 및 사회복지 투자에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4.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형성과정에 화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정부는 평화형성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라.

여성들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단체, 공동체 조직, 비정부 기구, 정책 기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과 동북아시아 분단사회에서 화해와 공동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계에서 살아온 남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사고방식, 생활습관, 그리고 그 체계 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상호이해와 인정을 가능케 하는 만남을 촉진하고 서로 의존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화해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6자회담과 같은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성은 평화형성과정에서 기회, 자원, 존중의 측면에서 남성에게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갈등의 관리, 해결, 예방을 위한 평화, 외교, 국방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성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며, 정부는 평화협상테이블과 외교, 통일,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30%이상 보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전환기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여성들에

게 아래와 같이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러시아 여성들이 동북아시아 각국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에 의해 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연대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3. 동북아시아 국가의 상호군축을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단결과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함께할 것을 희망한다.
4.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의 실현을 위해 6자회담을 포함한 평화협상과정에 각국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
5. 남북한 여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여성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국경을 초월한 동북아시아 여성 연대는 고통과 대립의 동북아시아 분단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와 상생(相生)의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omen striving for a 21st century of peace and coexistence through the overcoming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Korean women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of our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national divis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Our experiences confirmed that peace is life itself and the fundamental hope and universal right of humankind. We have placed our utmost efforts in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women's development, by maintaining peace, developing human rights and achieving democracy.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very last place it existed, i.e.,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building. The six-party talks are a turning point in creating new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w is the right time to establish peace and achieve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vercoming all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We, South Korean Women Peace Delegation, declare the follow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urge the governments in Northeast Asia to develop peace policy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ermanent peace depends on a firm commitment to mutual 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n an arms race based on mutual mistrust. We women urge that each government find method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We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men's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not military centered security which has some limit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righ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dem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placement of armistice with peace agreem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related to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aceful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should be resolved fundamentally and peacefully, and security of North Korea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solve the hostile relations and establish truly normal relations among Northeast Asia countries.

We dem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negotiations and dialogues under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goal we must achieve. Koreans know too well the suffering caused by nuclear weapons, through th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Neither in North Korea, nor the United States, nor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we test, manufacture, produce, register, own, store, distribute or use nuclear weapons. Furtherm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ust guarante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under article 6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3. We want disarma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the channeling of arms budgets into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ector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is a region of concentrated military build-up.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s responsible for 65% of the world's military spending, which is growing annually at a rate of more than 8%, higher than the world average of 3-4%. As of 2005, estimated military spending is \$ 478.2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 188.4 bill in China, \$ 64.4 bill in Russia, \$34.9 bill in Japan, and \$ 23.4 bill in South Korea (based on 2003 purchasing prices). (http://www.sipri.org/contents/milap/milex/mex_trends.htm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means disarmament, which will lead to disarmament of Northeast Asia. We women want each government to divert military spending into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including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4. W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Northeast Asia as facilitators, and want each government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building of peace.

Women will play an active, cooperative role i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ortheast Peace Community, along with regional civil organizations, grassroots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NGOs and policy institutions.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pursue mutual prosperity in the divided world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 long process, requiring patience and wisdom. Women can utilize our unique common bond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lived in different systems and have different thinking. In addition, we will play the role of moderators who can establish common visions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dialogue. Currently no women are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related to peace and security, even in such meetings as the six-party talks, which will decid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o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erms of opportunities, resources and respect. Women must be equal participants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at all level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Thereby, any favoritism or inequality toward one gender can be preven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in the fields of peace, diplomacy and defense, i.e., in the processes of managing, resolving and preventing conflicts. In addition, the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both men and women can be integrated. Thus affirmative action is needed to grant women an equal opportunity. Specifically, a 30% quota must be guaranteed for women's participation during peace talk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foreign affairs, reunification and defense policy decisions.

We South Korean women ask for cooperation from Russian women on the following item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 We appreciate Russian women for their efforts to build peac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we work together with Russian women to further pursue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promotes peace,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 an integrated whole in the future.

2. We request solidarity and active support from Russian wome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We want Russian women to support Asian women's efforts for mutual disarmament process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4. We would like to work together with Russian women for realiz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5. We ask Russian women for your active suppor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fforts by wome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ant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eace-loving Russian women and civil society. Women's solidarity in South Korea and Russia transcends national borders. Through this cooperation, we women together can overcome the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in Northeast Asia. Through this solidarity, we can accept and tolerate differences. Our cooperation will be the engine for achieving the universal values of peace and coexistence.

2. 여성6자회담 소개서

1) 여성6자회담이란?

(1) 한반도 비핵화 · 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회의

7월 18일 중국에서 다시 열리는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 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을 세우는 등 평화형성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평화협상 및 평화합의 이행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요구한 ‘UN안보리 결의안 1325’의 정신의 구현이 요청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는 ‘평화와 갈등의 금지 ·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이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중심영역 E: 여성과 무장갈등)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지구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하고 실현될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절반인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파트너로서 남성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결정, 리더십, 교육적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는 길이며 평화형성과정에 여성들의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여성 세력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을 논의하기 위해 6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여성)이 모이는 회의이다.

(2) 동아시아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 그리고 체제 · 문화의 차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완화하고,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들의 만남의 장(場)

동북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지 경험, 냉전이후 진영 간 대립이라는 역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 소통의 부재를 겪어왔다.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시아 전환기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와 신뢰, 자매애와 협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여성6자회담은 여

성들이 그동안 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3) 한반도/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비전(vision)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장(場)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실현은 한반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여성들의 공동의 목소리와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폭력과 평화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적 차이가 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평화형성 과정에 여성의 통찰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성6자회담은 6개국 여성이 모여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의 공동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다. 여성6자회담은 각국 여성들이 갈등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지대를 확대하고, 평화 능력을 향상해 적대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여성들이 바라는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출해낸다.

2. 여성6자회담 일정

일시: 2008년 8월

장소: 대한민국 서울 또는 금강산

참가자: 6개국(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여성활동가

+ 여성의원, 전문가, 정책결정자, 국제비정부기구, 유엔 등

Women's Six-Party Talks

1. What are the Women's Six-Party Talks?

1) Women's Conference for Peace-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ix-Party Talks are essential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t the governmental level. The talks agreed on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2005 and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However, there are very few women involved in the process. More women should be involved in the peace negotiation process, on the ba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UNSC Res.1325 underlines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and post-conflict perio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ender mainstreaming. According to the Critical Areas of Concern 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in 1995, governments should take actions to strengthen the role and ensur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at all decision-making level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may make or influence policy with regard to matters related to peace-keeping, preventive diplomacy and related activities and in all stages of peace mediation and negotiations. Sustainable peace is based on the full participation of women. The participation of women, half the population of Northeast Asia, as partners in peace building with men, will give women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Women should use their talents and promote gender empowerment in the peace process. Women's Six-Party Talks is a conference at which women from six countries—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will gather and discuss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2) Women's meeting places for the building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and for the reduction of misunderstanding and mistrust caused by colonial and cold-war experiences and by differences in political-economic systems and cultures in Northeast

Asia.

Women in Northeast Asia have experienced misunderstanding, mis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Women need meeting places where they can listen to others actively, recognize mutual differences, and build understanding, confidence, sisterhood and cooper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Women's Six-Party Talks will be a venue for communication among the six countries' women, to open their eyes and hearts to others.

3) Starting point to discover women's vision and action plan to build peac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Peace building in Korea and Northeast Asia will be accomplished by joint women's voices and actions in this region. The great experienti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with regard to violence and peace should be considered, and opportunities for women to use their talents should be guaranteed. Women's Six-Party Talks are to find women's vision and action plan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building of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xpected that the Women's Six-Party Talks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six countries' women to respond to conflicts in nonviolent ways, expand spaces for peace, promote peace culture, and finally transform antagonistic relations into cooperative relations in Northeast Asia.

2. When and where will the Women's Six-Party Talks be held?

When: August 2008

Where: Seoul, South Korea or Mountain Keumkang (special tourist zone in North Korea)

3. Who will attend the Women's Six-Party Talks?

- Women activists, women parliamentarians, specialists, and decision makers in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Republic of Kore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IV 문건 및 자료 모음

■ 워크숍 발표문 (1차)

■ 참관기

■ 언론에 비친 여성6자회담

■ 기타- Eight Tips for a Successful Lobby Visit

■ 워크숍 발표문 (1차)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 사회: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발표

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2)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실천하는 공동체 사회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3)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초안은 이후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문서로 정리되어
자료집 III 55p에 있습니다.

◆ 전체토론

- 일 시: 2007년 5월 22일 (화) 오후 3시30분~6시30분
- 장 소: 성가수녀원
- 주 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 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IV 문건 및 자료 모음

■ 워크숍 발표문 (1차)

■ 참관기

■ 언론에 비친 여성6자회담

■ 기타- **Eight Tips for a Successful Lobby Visit**

■ 워크숍 발표문 (1차)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워크숍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 사회: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발표

1)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평화
박건영(가톨릭대 교수)

2)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실천하는 공동체 사회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3)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 선언 초안 발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초안은 이후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문서로 정리되어
자료집 III 55p에 있습니다.

❖ 전체토론

- 일 시: 2007년 5월 22일 (화) 오후 3시30분~6시30분
- 장 소: 성가수녀원
- 주 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 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연구목적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이래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영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수차례 시도되었다. 최초의 시도로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 정전협정 제 60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 6월15일간 남과 북, 유엔 참전국 15개국, 그리고 중국 및 소련 등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하였지만, 한반도 내에서 유엔의 권위 인정 및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결렬되었다. 이후 관련국들은 후속 정치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한반도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시도는 199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세계 수준의 냉전의 종식에 힘입어 1991년 12월 13일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나아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 서명 직후 발생한 이른바 “북핵 문제”는 합의의 이행을 더디게 만들었고, 이에따른 남북 양측의 합의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은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세 번째 중대한 시도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와 관련이 있었다. 1991년 3월 한국과 미국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 계획에 따라 유엔 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했다. 북한은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 항의하면서 1994년에 이르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 이행의 한 틀인 군사정전위원회를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였고, 1995년 5월에는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과 군정위를 대신하는 북미 공동군사기구 설립을 제안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부정적 반응에 따라 96년 4월에는 '정전협정 준수 임무포기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전체제 와해 가능성과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은 1996년 4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4자회담은 1999년 8월까지 여섯 차례 본회담이 진행됐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화함으로써 탄력을 잃게 되고, 결국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시작된 북한의 대량과괴무기 제거협상인 이른바 '페리프로세스'에 흡수되고 말았다.

네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페리프로세스는 현실주의 실용주의에 기초한 대북 접근을 구사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기여하는 한편 2000년 10월 12일 북미 관계 개선과 미사일·핵·테러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북미공동코뮤니케 및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에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대선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하여 실현되지 못했고, 집권한 부시 정부는 페리프로세스를 사실상 종료시켰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 및 시험으로 이어졌다. 이락 문제 등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부시 정부는 힘의 과시를 통한 "미국적 가치" 확산을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노선에 일정한 전술적 변화를 꾀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로 외교실책을 만회코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2007년 1월23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면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데 합의함으로써 1996년 클린턴-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여 시작한 ‘4자 회담’ 이후 10여년 만에 그리고 페리프로세스 종료후 7년만에 다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회담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회담은 성공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6자회담과 함께 북핵과 전쟁미종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시도는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적 안정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험한 상태에서 이를 무효화하는 과정인 북한 핵폐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며, 게다가 북한 핵 보유는 지난 수십년간 세계 평화를 지켜온 지주 중 하나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6자회담이 이제 목표를 향한 첫 관문을 지났을 뿐이고 원칙합의의 이행과정이 쉽지 않은 조정과 협상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가 시기상조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9.19와 2.13은 분명히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 포럼이 병행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또 평화체제의 논의와 전략이 6자회담의 장래와 직접 연결되고 또 그 과정에 피이드백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민족이익을 아울러 확보하는 평화체제구축전략이 치밀히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6자회담의 향방에 따른 기민한 수정과 보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글의 목적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의미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 정전 상태가 전쟁 종료의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확인되고 군사적으로 보장되는 상태이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전쟁을 하지 않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일반적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적대행위 정지 목적의 군사적 성격의 협약이며,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간

정치적 조약으로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방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개최 시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개최 시기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 시설의 불능화를 이행”하고, 한국 미국 등은 북한에 “95단톤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완료”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중대 현안은 핵 문제이므로 참가국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대북안전보장에 있으므로 평화체제 논의를 핵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협상상대의 사활적 이익을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에 기초해있을 뿐 아니라 핵협상 자체를 일탈시킬 위험한 주장이다. 평화협정 타결 목표 시점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가 교환되는 시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의 체결이 어렵다면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의 교환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 평화협정은 NLL, 주한미군 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관계정상화가 평화협정의 핵심 (대북안전보장, 주한미군의 성격 등)을 사실상 구성한다는 사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문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대두할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누가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입장으로 이른바 ‘2+2’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평화체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의 군사적 실체를 인정하고, 당사자 문제와 논의방식 문제는 추후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는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4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한 바 있고, 최근에는 북한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남북미중 간의 평화협정이 북한의 대안이라 판단된다. 미국은 평화체제는 원칙적으로 남북이 해결할 문제이며, 북핵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13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할 때 4자회담은 유망한 대안이다. 민주당의 의회지배와 향후 미국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와 연동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역시 4자회담이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고려하여, 직접당사자를 남과 북으로 간주하고 남북간 논의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이 배제되거나, 북미간 협정 체결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이 강화되거나, 러시아 일본이 논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경계하는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직접당사자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4자회담보다 6자간 평화회담을 선호하거나, 간접적 방식으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 (1) 북미 (2) 남북미 (3) '2+2'(4) 남북미중 등의 대안이 있으나 기본원칙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직접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미군 장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했지만 한국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운 군사적 실체는 미군이었으므로 오랜 군사적 대치의 한 당사자인 남한과 함께 정전체제 해소의 회담에 실제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남한이 안보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북한의 무력일 것이다. 또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한미연합군사력과 미국의 무력과 의도일 것이며,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가 자신 및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이들 모두가 서로에게 가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해야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 미국은 평화협상의 직접당사자로 참여하고 이행의 의무를 공동으로 져야 타당하다 하겠다. 더구나 6자회담의 핵심이 북핵폐기와 대북안전보장이자 할 때,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 NPR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따라서 핵과 평화체제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참여가 불가피하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정전협정 서명국이므로 원할 경우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간 불가침이 합의되었으므로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다. 즉 남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평화협정 주장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고 따라서 현실성을 결여한다. 즉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은 남한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극단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회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협상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북미의 이익만을 담은 합의를 이행단 하는 처지로 전락하여 심각한 국내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대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내용과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무력 불사용,’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약속하고, ‘불가침의 경계선’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의 대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폐기 및 교체에 따르는 구체적 대안은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전쟁의 원인과 책임 규명, 이에 따른 배상과 보상, 전범처리 및 사면 문제 등이 평화협정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협정이 한반도 영구분단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초이자 연결점이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남북문제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점” 따라서 “주권과 국경 및 내정 불간섭 등 국가승인의 의미를 갖는 용어의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단순히 전쟁을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확인하고 평화를 관리하는 조치들을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체제는 군비통제 조치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담보하는 평화 촉진자/래칫(ratchet)

남북경제교류협력

평화협정은 한반도와 세계에 다대한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협정문 자체가 공고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평화를 촉진하고 또 평화협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협정이 북미관계정상화와 북핵폐기 등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화과정을 원활히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북미관계정상화는 이미 그 자체로서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적 메커니즘이다. 그외 메커니즘으로서 경제적 군사적 전략적 조치나 제도가 있다. 주요 경제적 조치 중 하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이고, 군사적 조치는 한반도 군비통제, 그리고 전략적 조치로서는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조치나 제도들은 이것들이 한반도의 평화동학을 촉진/강화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과정을 전향적으로, 즉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 관리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제협력과 관련, 남과 북의 당면한 과제는 개성공단의 심화/확대, 금강산 프로젝트의 다변화/확장, 그리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속화 등이 있다. 이러한 3대 경험의 진전에 따라 남북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북한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등의 사업으로 그 규모를 업그레이드 해갈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이러한 사업들을 정치 문제가 경제 협력을 가능한 한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복궤전략(two-track approach)”에 입각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확장은 양자간 상호의존의 심화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평화과정에서 남한의 대북 레버리지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증대된 남북간 상호의존은 그것이 일정한 임계점을 넘으면 평화과정이 역진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래칫효과(ratchet effect)”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의 증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래칫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 등 평화체제 관련국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가능성이 증대되거나 현실화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다시 말해, 북한의 선제적 대규모 군사도발은 자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냉전 역사가 웅변적으로 알려주듯, 자유시장의 힘이 폐쇄적, 배타적, 비효율적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군비통제와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

군비통제와 관련 통상적인 순서로서 ‘정치적 신뢰구축 - 군사적 신뢰구축 - 군축’의 과정이 제시된다. 이러한 전통적 접근방법이 논리적 설득력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계가 다른 단계의 선결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SALT, ABM 조약 등 냉전기 미소가 이루어냈던 군비통제 조치들은 양자 간의 정치적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할 만한 검증의 절차와 기술에 기초한 것이다. 군비통제의 과정은 신축적으로 합의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군축은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지만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촉진/보장 기제를 동반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이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 작업을 지속한다면 남북한만의 군축은 통일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공동/협력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하여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6자 회담으로부터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은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가 더디게 발전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군축은 합리적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후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 군

축의 위협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결과제이며, 또 군축이 무장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나아가 통일후 필요한 경우 자위수단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체계적 평가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다. 한국의 무기수입대체 노력을 통한 민군겸용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군축 노력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합리적 기제가 될 것이다.

군축의 이행은 남북한 정부의 의지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이에 기생하는 국내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축은 남한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미 군산복합체에게는 다대한 손실을 의미함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국내정치적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세계무기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세계적인 개입 능력 제고에도 차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설사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 해도 상응하는 유인제(incentives)가 결여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군축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필요한 군축 지연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무기수입선 다변화 나아가 수입대체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유사시 부품 공급의 필요성 등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 무기체제를 혼용하고 있는 대만이나 이스라엘이 작전 수립/실행에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수입대체는 단기적으로 군축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민군겸용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무력의 공급조절을 한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잇점을 제공한다. 즉 군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유사시 방어력으로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담보한다는 면에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 할 때 회임기간이 긴 무기수입대체 노력을 기울일 적기라 하겠다.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가 공식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한미간의 문제라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통제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수준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변동할 것이지만 이는 한반도 군축과 맞물려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한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동맹”으로 설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의미하는 바, 한미 관계의 악화와 그에 따른 남한의 국내정치의 동요 등은 가까운 장래에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양국간 군사원조의 대상으로 “공동의 위험(common danger)”을 적시하고 있을 뿐 북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북한의 재침방지를 보장하던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다른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성격이 재해석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 전환은 북한의 안보위협 수준을 낮추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다. 유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결부하는 이유는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는 북한의 오인(誤認)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이고 이러한 오인의 가능성은 주한미군이 통제되지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그리고 한국의 중용국가 전략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체제 개방에 따른 개혁의 과정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을 비롯해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급증하여 남북공영과 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기대될 수 있고, 사실상의 통일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군축에 따른 한반도에 ‘평화배당금’이 발생하여 안정과 평화공존의 기반이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역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미, 대러시아, 대일 전략상 지정학적 핵심 요충국인 북한”을 포함 한반도 전역이 미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는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에 따른 북한의 미국 질서에서의 편입은 중국을 긴장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가지는 전략적 함의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후, 그리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 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된다. 현재에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사실상 중국용이라 할 때 북한위협 의 소멸로 인해 결국 명실공히 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지형이 변하여 미사일방어체계가 용도변경이나 폐기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미중간 긴장이 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중간 경제협력이나 대테러협력의 중요성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주동할 개연성도 낮지 않다. 그러나 “절대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정치적 심리 효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일본 대만 남한을 군사적으로 연결하는 전략 고리로서의 역할과 그 효과,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일당독재 체제”의 중국의 급부상이 “보수화된 미국인들”에 대해 가지는 위협 증폭 효과, 그리고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단으로 중국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동반하게 되어 일본 지원에 의한 북한의 개혁 개방이 탄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교차승인의 완성으로 동북아는 정상적인 국제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특히 북일관계가 안정되어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지역안정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불안정 요인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평화체제가 구축된 한반도의 일부가 영토나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민족주의적 충돌을 벌이는 경우 남과 북이 조직적으로 공조하고, 중국이 여기에 결부되며, 또 평화체제로 인해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남한의 대미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결속하여 동북아 지역에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미중관계의 불안정성 증가나 동북아지역내 새로운 전선의 형성은 안정과 공영 속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된다. 따라서 남한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어하고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은 분별력있게 구체화되는 경우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을 완화하여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그에 따른 인식론적 틀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어 현실성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다. 동북아균형론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일동맹의 견결성이다. 미일동맹은 한국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미국은 민주 공화 양당 공히 “세계는 아시아에 달려있고, 아시아는 일본 및 미일동맹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경제 군사적 능력과 함께 가치의 공유가 중요한 이유이다. 일본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미일동맹의 강화뿐이라는 공감대가 주류 외교안보 씨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북아균형자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본을 배제하는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에 동조할 수 있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가치, 독실구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를 연장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에 적용해보자. 한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지지하는 경우 미국과 일본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부터 재고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지지하는 경우 한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균형자론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상정하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지, 그리고 지역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재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사실 균형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국적 의미는 그의 서양식 직역(直譯)인 밸런스와는 큰 거리를 갖고 있다. 한국적 의미에서의 균형은 안정(stability), 정의(justice), 순리(harmony)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중용(中庸) 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침략의 역사가 없고 또 현재 동북아 각국과 모두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매력을 보태면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균형자라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를 목표로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중용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의미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각국에 대한 한국의 제안과 주도가 설득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처럼 종속적 역할을 계속 자임하는 경우 또는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탄력없는 추수(追隨)로 일관할 경우 한국의 지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성숙한 관계를 설정하여 자율성을 한도 내에서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또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계의 발전과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만드는 평화, 여성이 실천하는 공동체 사회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I. <평화 만들기>와 여성참여의 의미 : 국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1994년 4월에서 1995년 4월까지 르완다에서 있었던 인종학살(genocide)에서 50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살육전에서 살아남은 12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사실상 공격을 당하였다고 한다. 1992년에서 95년 사이의 보스니아 전쟁에서도 5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인종청소' 캠페인 아래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 인도에서의 캐시미르 분쟁에서도 7000-16000명의 여성이 군인, 분리주의자 그리고 보안군에 의해 공격을 당하였다.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의 갈등은 군사주의 문화가 여성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전쟁지역에서 여성은 적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군인에 의해서도 공격을 당하였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소말리아 등지에서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은 스스로의 '보호자'에 의한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²⁾ 이렇게 여성은 무력갈등의 피해자이다. 뿐 만 아니라 분쟁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쟁의 참화를 견디어 내어야 하는 피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임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평화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러나 희생자로서의 여성의 모습 외에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과정 때문에 평화형성 과정에서 독특한 통찰력과 가치관을 지닌다. 그래서 여성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면서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풀어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을 소극적인 희생자로 정형화하는 경향에 대

2) Lisa Schirch & Manjrik Sewak, The Role of Women in Peacebuilding, www.gppac.net, p. 13

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르완다에서 여성들은 후투(Hutus)와 투치스(Tutsis)가 함께 거주하는 시범촌을 만들기도 하였고, 파푸아 뉴기니아 정부와 분리주의자 사이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여성은 큰 역할을 하였다. 수단과 벨그라드 그리고 캐시미르에서도 여성들은 함께 발전계획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³⁾

이렇게 비평화의 희생자로서의 여성과 평화형성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여성이 평화형성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보다 상세히 짚어보자면,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이다.

-여성은 모든 공동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래서 평화형성과정에 여성은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은 가족의 중심적인 돌봄 담당자(caretaker)이고, 그들이 차지하는 공동체에서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평화형성과정에서의 참여는 본질적인 것이다.

-여성은 폭력과 평화 모두에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닌 능력을 평화형성 과정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폭력과 평화에 대해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이 지닌 고유한 통찰능력과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폭력은 또 다른 형태의 여성폭력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여성은 특히 평화형성과정에서 이런 고유한 형태의 폭력에 집중하는 평화형성과정에도 개입하여야 한다.⁴⁾

이렇게 평화형성과정에 여성 참여의 중요성이 거론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우선 1995년의 북경여성대회에서 여성들은 무력분쟁 분야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북경행동강령을 통해서 “과도한 군비를 줄이고 무장가능성을 통제”하고(E2), “비폭력적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분쟁 상황에서 인권남용의 사건을 감소”하고(E3),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E4)하기로 하였다.⁵⁾

3) Ibid., p. 7

4) Ibid., p. 6

5) 안정애, 「여성과 무력분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

평화와 관련하여 여성의제를 안착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은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을 지원하려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1999년에 영국에 기반을 둔 International Alert은 100여 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이 만드는 평화(Women Building Peace)”라는 전지구적 캠페인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 10월 31일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조항을 통해서 더욱 활기를 얻게 되었다. 이 결의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항 회원국가들이 갈등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여성들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대표성 증가는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2항 사무총장이 갈등해결과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수준들에게 여성의 참여 증가를 요구하는 그의 전략적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다.
6항 사무총장이 회원국가들에게 여성의 보호, 권리 및 특별한 유무에 대해 또한 평화유지와 평화안전을 1325에서 여성을 관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훈련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8항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수반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전이관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1325는 갈등을 통해 최악의 피해를 입는 것은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임을 주목하고, 갈등방지와 해결 시도에 여성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평화형성과 평화유지의 임무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1325이후로 평화형성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지닌 각기 다른 요구를 감안하여 여성을 모든 평화형성 과정에 개입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유엔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혹은 UNIFEM은 ‘여성, 폭력, 평화’에 대한 연구와 그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International

다보이: Beijing + 10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2004. 6. 1. 131쪽

- 6)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번역은 심영희, 여성과 안보, 평화여성회 전문가포럼 <여성이 본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2004. 7. 1. 67-9쪽, 정경란, 「성인지적 통일 평화부문 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125쪽에서 재인용.

Alert, 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와 함께 평화협상에 참여할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여성단체들을 지원하였다.⁷⁾

그러나 1325조항을 현실로 전환하는 일은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예를 들자면, 유엔에 파견된 각국을 대표하는 고위직 외교관 191명 중 여성은 11명에 불과하다. 공식적인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큰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여성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평화 이슈와 관련하여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룬디의 평화협상에는 126명의 대표단 중 여성은 단지 2명이었다. 여성이 초기의 저항이 불분명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동티모르에서도 15인으로 구성된 전국저항위원회에서 여성은 두 명에 불과하였다. 여성이 인종적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낸 코소보에서도 유엔의 임무를 담당하는 지도력에서 여성은 단지 5명에 불과하였다.⁸⁾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II. 전략과 실천

평화형성 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제한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여성주의적' 관심과 갈등방지와 평화형성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주체에 의해 포괄되는 이슈사이에는 개념상으로 괴리가 있다. 많은 NGO는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 방지에 집중하였고, 이들에게는 거대한 집단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공적 폭력(Public Violence)과 이것이 동반하는 사적 폭력(Private Violence)의 구조적 원인들에 도전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런 입장은 공적 폭력에 저항하는 주체는 남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갈등의 맥락 속에서 평화 형성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모색해야 한다. 여성과 여성의 역할이 인지되기 위해서는 평화 실현의 과정에서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 여성은 평화형성을 위한 조직들내에서부터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면서,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7) Lisa Schirch & Manjrik Sewak, op.cit. p. 2

8) Ibid., pp. 13-4

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유익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해야 한다.

UNIFEM과 여성 NGO들은 공적 폭력을 수반하는 '폭력의 망(Web of Violence)'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공적 폭력은 인종, 종교, 계급 혹은 다른 '정체성을 지닌 집단(group of Identity)', 즉 타자를 차별하는 것과 비례해서 특권을 누리는 구조적 폭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폭력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세계의 절대빈곤층, 즉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13억 인구 중 7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당연히 구조적 폭력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첫째로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괴행위(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truction), 예를 들면 반란, 테러, 내란, 전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혹은 각종 범죄와 같은 지역 내의 파괴행위(Community Destruction)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알코홀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자기 파괴(Self-Destruction)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세 범주의 파괴행위들은 모두 구조적 폭력에서 자라나오는 '부차적인 폭력(Secondary Violence)들이다.⁹⁾

이런 폭력의 악순환을 고려한다면, 평화형성은 내전의 종식이나 방지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 평화형성은 사람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심급에서, 즉 개인, 가족, 공동체, 조직, 기업, 정부 간에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인 제도 간에 '관계의 네트워크(networks of relationships)'를 개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관계망이야말로 권력의 한 형태이거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평화형성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 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로 가장 먼저 시민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성별 영향평가나 성별 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과 폭력에 대한 분석수단은 모든 평화형성 기획에 중요

9) Ibid., p. 4

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전쟁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달리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평화형성 과정에서 원조지원금은 분배되었는지 등이다. 또한 계급이나 종교, 인종집단 그리고 연령에 따라 그리고 여성 내부에서도 이런 차이에 따라 어떻게 젠더 역할이 달랐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UNIFEM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이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에 끼친 영향 등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성별 영향평가의 과정에서 기존의 군사안보에 제한된 기존의 안보개념을 확장하여, 흔히 보다 부드러운 이슈(soft issues)로 간주하는 식량안보, 생태안보 혹은 인간안보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공감이나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선호가 협력과 상호공존에 기초한 평화와 안보의 담론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⁰⁾

둘째로, 성 평등의 목표는 모든 평화형성의 행위자들에게 중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일한 기회와 자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양성이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남녀를 막론하고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목표들이 평화형성 과정에 통합되어 질수록, 평화형성 프로그램은 평화 뿐 아니라, 성 평등 자체에도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형성 과정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재정 지원기관은 이런 목표에 준하여 프로젝트를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여성의 참여가 ‘알리바이’ 차원의 대표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의 가치의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이는 공존, 다양성, 포용성의 정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장관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가정책은 비전통적인 영역, 건강관리 · 교육 · 기초적인 인간육구 등에 집중한다. 페미니스트 학자인 앤 티크너(Ann Tickner)는 덜 군사주의적 대외정책과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안보에 대한 더 많은 개입이 덜 젠더화된 안보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¹¹⁾

10) Ibid., p. 15

11) Ibid., p. 16

셋째로, 모든 평화형성의 과정과 활동에 여성과 여성조직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즉 여성지도자와 여성조직들이 평화관련 행위자들과 더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케냐여성평화포럼(Kenya Women's Peace Forum)은 해마다 국가정책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02년 선거에는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를 조직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덜 폭력이 난무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 시민사회의 여러 시도가 '적 이미지'와 불신 및 적대감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여성들은 다양한 이해집단을 포괄하는 인간화의 과정을 밟아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의 평화만들기는 종교, 민족, 계급의 차이를 넘어 다양한 경로의 상호관계를 촉진하였던 것이다.

이런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참여과정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여성폭력, 혹은 교육 직업 지도력 등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설혹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더라도 젠더 이슈가 게토화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나 성찰성을 지닌 그리고 잘 훈련된 전문가의 배치가 중요해진다.

평화만들기 과정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전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평화관련 시민단체 조직들을 구조적, 사적, 공적 폭력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폭력의 망'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 여성의 세력화와 평화형성에 필요한 지식을 증대하도록 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 갈등과 무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 평화형성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주류화하고,
- 평화형성을 위한 접근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 교육, 연구, 평화실현 실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달리 진행되는 활동은 가장 최상의 아이디어와 실천방식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III.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여성의 참여

2000년의 북미공동선언,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였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13합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2.13 합의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고,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과 여성운동은 이러한 평화형성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미 국제평화운동이나 여성운동단체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평화형성과정에 여성의 참여나 젠더관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무장폭력과 갈등이 존재하였던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평화형성에서 했던 적극적인 역할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언급한 전쟁을 경험한 지역들은 아직 권력이 정착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뿐 만 아니라 그런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는 유엔을 위시한 개발원조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 지원자의 압력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안정되어 있고, 남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의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0대 핵심정책과제에서는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역할확대”가 명기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허약하다. 제2차계획은 시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처를 여성부, 유관부처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지막 두 부처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젠더관점은 부재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조항은 양 부처 담당자들의 사고 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이는 우리 정부의 평화실현을 위한 정책 과정에서 여성단체는 거의 정책파트너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사실상 군사력 강화를 통한 평화와 안보의 추구에 해당하고, 김대중 정부에

서보다도 늘어난 국방비는 '북경여성행동강령이나 유엔 안보리의 군사비 축소 및 군축에 대한 요구'와 역행하고 있다.¹²⁾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1) 젠더 관점의 강화와 성별 영향평가 실시

1325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부처 내에 젠더관점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형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의 책임 있는 사업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는 평화형성 관련 사업담당자를 배치해야 하고, 평화형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통일부에서도 여성사업 관련 독자파트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그리고 국방부의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이다. 성별영향평가와 성별 분리통계가 시행되지 않는 한,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은 왜 통일-, 평화-, 외교정책에 성 주류화가 필요한지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2) 통일, 평화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13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정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50%까지 늘려야 한다. 특히 여성참여가 저조하였던 국방부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¹³⁾

3)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정에 젠더관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여성참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런 요구는 여러 번에 걸쳐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지만, 젠더관점의 도입이나 성 주류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는 대단히 낮아서, 실현전망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결국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이런 주장은 공허한 주장으로 끝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유엔의 강력한 요구와 이것의 공론화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12) 정경란, 위의 글, 137-8쪽

13) 정경란, 위의 글, 140쪽

4) 관련부처는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NGO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뿐 만 아니라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에 비한다면,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은 낮은 편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진흥원 등을 통해 공무원 일반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5)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에서 젠더관점의 도입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 조항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2005년 12월 관련 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교류협력의 수행에서 성 평등의 원칙과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제안하였고, 여기에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아니라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이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 성이 전체의 70%를 넘지 않을 것도 제안하였으나, 아직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¹⁴⁾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나 여성평화운동이 시도할 수 있는 전술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나 평화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평화형성과정에 젠더 관점의 도입이 지니는 의미와 여성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런 내용을 활동가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과 평화와 관련하여서 성맹적(sex-blind)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인데, 여기에 대해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나 평화관련 주요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과 같은 공동조직에서 여성 할당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이를 통해서 정관에 여성할당제 30%를 삽입한 것은 큰 성과이다. 이런 방식이 다른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14) 한국청년연연합회/ 서울 YMCA/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통일교육문화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서-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2005. 10. 18. 그 외에도 정경란, 위의 글, 141면 참조.

2) 여성대중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여론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아직도 여성 대중 사이에는 반공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 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낼 것인가도 우리의 과제이다. 대중과 함께 가는 평화운동의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 전반에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새판짜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강대국에 밀려 남북관계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되지 않도록, 여성들은 새로이 형성되는 신질서에 대응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크게 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¹⁵⁾

3) 여성을 위한 평화교육의 확산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많이 확산된 데 비해, 여전히 평화교육의 실시는 제한적이다. 평화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서와 더불어 평화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교재 개발도 시급하다.

4) 국제연대활동의 강화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의회나 시민사회, 혹은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들도 해외의 (여성)평화단체나 유엔 등과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위성을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여기에서 겪는 곤란은 재정부분이다. 국제연대를 위해서는 언어능력을 갖춘 실무자와 재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여성자원을 개발하고, 정부나 재정 지원 단체를 상대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시도하는 <여성6자회담> 기획은 바로 이런 과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이어서 매우 소중하기에,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15) 김창수, 2. 13 합의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미발표원고, 10-3면 참조

IV. 대안사회의 전망 없이는 미래의 통일사회를 꿈꿀 수 없다

한국에서 대안사회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과도한 국가(민족)주의나 경제성장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 권혁범은 식민지의 기억과 분단체제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국가나 민족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강하고, 이런 국가에 대한 강박적 인식은 '근대적 개인'의 출현을 지연시켰다고 보았다. 군부독재와 더불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각인과정은 폭력적이었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딘 현실 속에서 이는 안보, 발전, 반공을 위해서 인권 침해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사고나 행동규범을 내면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구보다는 물론이려니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서도 한국의 20대는 '애국'과 '단결'로 상징화되는 강력한 국가의식을 지녔고, 전쟁에서의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더 강력하였다는 것이다.¹⁶⁾

이렇게 식민지경험-분단-신속한 근대화과정을 통해 각인된 민족주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어, 도처에 부국강병의 민족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이 보다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이 선진국 따라잡기나 강대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타자의 희생이나 우리 민족 내에서 일부 집단의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신조를 암암리에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부국강병적 민족주의는 경제성장주의와 결합한다. 더불어서 민족주의는 그 특유의 통합력으로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경제성장주의는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을 낳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적과 우리의 이분법 구도를 국민에게 내면화시키고, 강렬한 민족주의 감정이 생명, 자유, 평화, 평등, 환경 등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담론은 다양한 구성원을 획일적인 집단주의에로 포획하고, 민족 구성원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갈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¹⁷⁾ 즉 '전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요

16)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의 의식에 대한 공동조사에서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겠다'는 질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2000년, 솔, 서문 참조.

17) 같은 글. 그 외에도 권혁범, 근대성과 민족주의-단한 혹은 열린 민족주의를 넘어서, 동국대 대학원 신문, 2002년 12월 참조.

구는 우리 사회에서 성/계급/지역 간의 갈등과 불평등성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민족이 당면하는 위기의 책임을 외부의 존재에게 돌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에는 게을렀다. 이런 외부의 적을 향한 책임의 전가는 분단이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¹⁸⁾

여기에서 강조해야할 것은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대중 민족주의는 많은 부분 '남한체제에 대한 애호주의(patriotism)'라 말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달성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자만하는 이 민족주의는 사실상 국가주의라 말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민족주의 담론이 지닌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근대 민족주의라는 해방의 코드 속에 내재하는 배타성과 타자화의 논리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당연히 굶주리고 있는 북의 동포들은 제외된다. 물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그야말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들에게서도 이런 배타성의 논리는 잔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에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의 소수자는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운동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관행들은 바로 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여성이 꿈꾸는 미래 통일사회의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은 평화운동을 강조한다. 평화운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일종의 유토피아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이상주의를 향한 무모한 열정을 가진다.¹⁹⁾ 그래서 평화운동은 당장 전쟁과

18) 권혁범, '시장/경제'송배시대의 민족주의와 세계화, 녹색평론 1998년 5-6월호 참조.

19) 이러한 이상주의는 평화교육의 방법론에서 어실히 드러난다. 평화교육이 지니는 차별성은 '현상유지와 여기에서 조금 나아간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기 보다는 '대안적인 미래'를 설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에 있다. 즉 "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꿈꾸는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미래에서 현재로' 단계적으로 내리오는 방식"이다. 이는 피교육자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와 성실한 실천'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기존의 교육학이나 교육제도가 지닌 속성을 뒤엎는 '역설의 교육'이 되고자 한다. 이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현행의 학교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평화, 인권,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가치와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고병현,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여성과 평화> 1집, 258, 260면

비인간적 폭력이 사라진 사회를 회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구조적 폭력, 잠재적 폭력이 사라진 사회를 희망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 즉 고도성장, 자본의 독점, 군수산업의 확대, 업적주의와 효율우선주의, 환경 파괴, 빈곤, 성차별, 인종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꿈꾸는 일이다. 이는 평화운동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넘어서는, 반자본주의적 과제를 안고 가야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당면한 아프간반전운동과 이라크반전운동, 국방예산감시운동, 무기구입 감시운동, 소파 개정운동 등의 과제를 감당하는 것도 현재의 역량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운동가들은 “우리 운동이 적극적인 평화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안사회를 모색하고 실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노력은 아직 소홀하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쟁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에 불구하고, 파병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요한 동기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에 대한 두려움 못지않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였다는 사실은 왜 평화운동이 대안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부국강병주의적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않은 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결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화운동의 성패는 대안사회, 대안경제의 모색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제 평화만들기를 위해 여성이 먼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보자.

■ 참관기

한 여름 속, 한 줄기 평화바람

안인숙 (대전여민회 교육부장)

한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전국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기보다 더 덥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일여성평화방문단은 일본으로 떠났다. 첫날 일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문만큼이나 위력이 있던 한여름의 훈기를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우리는 바삐 걸음을 옮겨 숙소가 있는 도쿄의 시나가와로 향했다. 숙소에서 여정을 풀고 나서 신주쿠에 있는 피스보트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였다. 사무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더욱이 그날을 우연치 않게 알자지라 방송에서 취재를 나와 있어 많은 사람으로 분주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10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진해씨의 통역으로 요시오카(공동대표) 쿠시부치 마리(사무국장), 노히라 시나사쿠(지구대학교 담당자)를 만나서 일본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평화방문단이 어떻게 일본 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숙소에서 이틀 동안 우리의 활동을 코디네이터를 해주면서 통역을 해줄 금령화씨와 김봉양씨를 만나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시미즈 스미코 전 일본참의원인을 만나러 갔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국회건물은 참 인상적이었고 들어

가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간담을 하는 장소인 작은 회의실에는 온나노 신문(여성의 신문)의 사카모토 요코 편집장이 미리 도착하여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러는 사이 곧바로 시미즈 스미코 전의원이 도착



하여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미즈 스미코 전 의원은 북학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주체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연대를 하자는 우리의 방문 목적에 깊이 공감하였다. 그리고 난뒤 우리는 시미즈 스미코 전 의원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난 뒤 온나노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오후에는 '여성과 직업의 미래'관에서 일본의 여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의 여성의원들과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 녹색테이블, 신일본무인회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우리의 방문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참석한 여성들의 많은 수가 풀뿌리 운동과 생활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어서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8월24일 일본 오가와라 마사코

조금 낯설어 하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큰 뜻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간담회를 마칠 무렵 이미경국회의원이 도착을 하였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 이번 한일평화방문단에 함께 하게 된 이미경의원을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셋째날인 24일(금) 우리의 일정은 여지없이 빡빡하였지만 일본의 여성들을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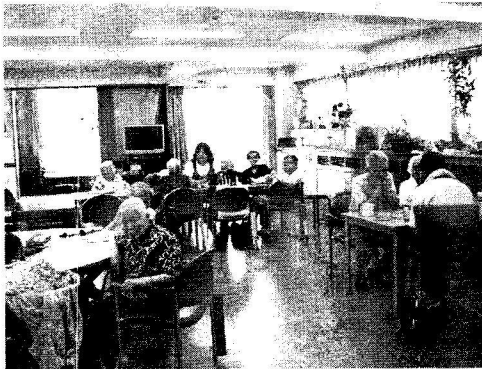
고 또 풀뿌리운동이 핵심메카인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을 방문한다는 것에 조금은 들떠 있었다. 우리는 어제 방문했던 국회로 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 당선



이 되어 국회의원이 된 오가와라 마사코 의원을 만났다. 오가와라 의원은 전날 만났던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던 중 지역구의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가와라 의원 역시 우리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에도 많이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였다. 오가와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점심을 먹은 우리는 카나가와현 아즈기시에 있는 카나가와네트워크운동의 사무실로 향했다. 두어번의 전철을 갈아타고 도착한 아즈기에는 전 대표였던 마타키 교우코씨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역에서 3분 거리인 사무실에 들러 간단한 소개를 마친 우리는 곧바로 현장을 시찰하러 출발하였다. 이곳에서는 NPO법인을 만들어 노인케어서비스시설, 어린이보육시설과 함께 재활용나눔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카



나가와 네트워크운동에서는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NPO법인으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재활용나눔가게를 운영하면서 일본이 제국침략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수탈했던 과거를 사죄하기 위해 물자를 재활용해 자원을 절약하고 수익금을 다



시 동아시아 국가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도 가슴에 깊게 남았다.

카나가와 네트워크 방문을 마친 우리는 다시 도쿄 시내로 돌아와 참의원 후쿠시마 미즈호씨, 평론가이자 여성운동의 리더인 히쿠치 케이코씨, 중의원 코미야마 요코, 산부인과의사 마사코 호리구치씨를 만나 다시 한번 우리의 방문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재일교포인 송연옥(아오야마대 교수)를 만나 재일교포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인, 일본인이 아니면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재일교포의 상황과 교포사회 역시 둘로 나뉘어 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너무 가슴아파했다. 이렇게 우리는 3박4일의 짧지 않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보는 것이라 조금은 떨리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함께했던 이미경의원님, 정현백 대표님, 김정수 대표님, 정경란 소장님의 많은 배려로 즐거운 방문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성들이지만 일상의 평화에서부터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데에는 여성들이 큰 몫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함께 가지며 방문을 마쳤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의 미래를 그려가는 2008 여성6자회담 - 중국방문 보고 -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우리 여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분단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의 마지막 현장인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의 발신지로 전환되기 위한 개혁의 꿈을 안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2008, 여성6자회담'이라는 간 큰? 계획을 만들었다. 여성을 평화의 힘으로 모아내기 위해 평화여성회뿐 아니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여민회 등이 여성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이름으로 올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방문하여 여성단체, 평화단체, 여성 국회의원, 여성전문가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창의적인 지혜를 모아 동북아 여성평화네트워크를 추진하고 2008년 가을 금강산 또는 서울에서 '2008 여성6자회담'을 제안할 계획을 갖고 이다.

이에 지난 7월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북경의 여성단체를 방문하기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 중국팀으로 심영희(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전체행사 코디네이터), 그리고 필자인 김현희(평화여성회 사무국장)가 구성되었다.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7월16일 오전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약칭 : 중국부련)을 방문하였다. 이 단체는 1949년 3월에 설립되어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중국여성들의 발전을 위해 세워진 대규모 조직으로 여성들의 권익과 관심사를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중국부련의 국제부장인 Ms. Zou Xiaoqiao와 여러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우리는 여성6자회담을 제안하면서 △1995년 세계여성베이징 행동강령 및 2000년 유엔안보리 1325에서 평화와 갈등예방에 여성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과정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 문제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한 중요성 △ 동북아의 갈등(군위안부 문제, 영토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인식



중국부린 국제부장과 함께
- 부린길물 앞에서

및 상호이해의 장을 넓히기 위한 여성들 노력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였다. 이후 10월에 여성가족부의 초청으로 중국부린 국제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한국여성평화방문단과 모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월17일에는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를 방문하였다. 이 단체는 1988년에 설립된 민간평화단체이며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평화를 지켜, 군비관리와 군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임 부주석인 Ms. Huan Guoying 과 사무총장인 Mr. Niu Qiang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우리는 현 6자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중요한 역할 및 동북아 평화 및 북핵관련 정세인식을 공유하였다.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이 제안한 2008여성6자회담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외 우리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가정폭력상담, 법률상담, 노인상담, 혼인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북경홍핑여성심리상담센터(약칭 : 홍핑)와 가정폭력반대와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법학회 가정폭력반대네트워크/연구센터 (약칭 : 반가폭)와 북경대 부녀문제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혁개방이후 가정내 폭력,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가정내 가사분담 등 중국 여성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중국여성단체들이 일정부분 한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을 참고하여 가정폭력방지법 건의안을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입법과정이 7-8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계류중이라고 한다. 중국은



반가폭에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
문서와 선물 전달

1995년 세계여성북경대회 이후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설립되었

으며 외국 지원과 각계각층의 회원회비를 통해 가정폭력대응활동, 상담활동, 저소



북경대 앞에서-북경대 부녀문제연구소
부주식 왕준배교수와 함께

독층여성들을 위한 소액대출활동 및 자립지원 활동 등 다양한 여성이슈들을 발굴하여 활동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여성인권향상에 진보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성의 빈곤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는 발전이데올로기 앞에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의 현실이 냉엄하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여성의 삶의 변화는 북한사회가 개혁개방으로 전환이후 여성의 삶에 미칠 변화에 대하여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였다.

2008 여성6자회담의 실현을 위하여 첫발을 내딛 중국방문.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동북아 평화실현의 꿈에 이미 50%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여성엔지오가 여성권익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방, 외교, 평화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들로 인해 여성들의 주체적 관심과 노력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화는 여성들의 삶과 우리 미래세대의 삶을 위협하기에 평화를 위한 우리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이번 방문단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8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과 9월에 미국방문 10월에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관심사를 나누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꿈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워싱턴에서 '여성6자회담'을 말한다.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9월 17일 워싱턴이 한국인들로 붐볐다. 우리 일행(한국여성평화방문단) 뿐 만 아니라 김대중 전대통령, 평화재단 법륜 스님이 워싱턴에 오신 것이다.

재미동포들에 따르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정책결정자, 의회, 정책기관 관계자들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한다. 다차원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는 지도력, 교육적 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여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정책결정에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내기 위함이다.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남북여성교류의 경험이 있고 평화운동에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 중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정현백 공동대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 평화여성회의 필자로 구성되었다.

* 미국방문 취지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이미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 방문에서 중국과 일본 여성의 경험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화해·협력·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남북여성교류 현황을 알리고 각국 여성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 동북아여성들의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미국방문 역시 첫째, 한국과 미국 여성단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다. 미국 여성단체 지도자를 만나 2008년 '여성6자회담' 개최를 알리고 북미 사이에 화해협력을 위해 여성들이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있다. 둘째, '로비 투어'의 성격을 가진다. 미국 여성의원,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여성단체 대표와 만남

미국 땅이 넓어 미국 단체들은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백악관과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워싱턴에 단체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만난 미국여성단체 대표들은 남북 교류협력 규모와 남북 여성교류 사실에 놀라워하였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다. 이들은 한국여성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를 희망하고 여성6자회담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여성들에게 북한 여성단체들과 직접 교류하는 것을 제기해보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컸다.

1차대전을 막기 위해 분연히 여성들이 일어서 조직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합"(WILPF) 미국 지부는 월프 지부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지부는 쿠바를 방문하여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미국 정부의 반대로 쿠바를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평화여성회에서 몇년전 상영한 "전선에 서있는 여성"을 제작한 피스바이피스(peace x peace)는 분쟁지역의 여성평화운동을 다루고 인터넷을 통해 여성을 연결하고 있었다. 분쟁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의 네트워크인 "평화를 일구는 여성네트워크"(Women Waging Peace Network)는 수시로 분쟁지역의 여성들을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좀 더 포괄적인 틀인 포괄안보(Inclusive Security)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었다. 글러벌평화여성이니셔티브(Global Peace Women Initiative)는 유엔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2008년에 인도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있었다.

아시아재단을 방문하여 여성프로그램 담당자와 만나 남북교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시아재단의 북한과 교류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아시아재단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코드핑크 활동가집을 방문했다. 분홍색과 열정에 쌓인 생생한 여성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코드핑크는 미국 내 4개의 사무실이 있고 250개의 지역기지가 있다고 한다. 지역에 쉽게 조직할 수 있게 회비와 사무실이 없어도 지역기지를 만들 수 있고 핑크 밴드를 매고 코드핑크의 뜻을 따르면 조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드핑크의 운동방식은 신선했다. 전쟁하면 떠오르는 게 분노, 슬픔, 고통이다. 이를 핑크색 옷, 머리띠, 왕관, 허리띠, 피켓 등을 이용해 웃기고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노래도 하면서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평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나도 핑크빛 모자와 쇼울을 두르고 자세를 취해 봤다. 웃음이 나왔다. 이런 방식을 한국 여성평화운동에 도입하면 어떨까 질문해 본다.

* 로비 방문

처음에 로비방문과 관련하여 ‘북한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의 카린 리는 ‘30분’안에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지 그리고 어떤 용어 사용이 더 호소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성공적인 로비 방문을 위한 8가지 팁’은 로비를 하기 위해 알아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FCNL Eight Tips for a Successful Lobby Visit) ‘8가지 팁’은 약속 정하기, 의원의 기록 알기, 시간 엄수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한 이슈에 초점 맞추기, 정보를 듣고 모으기,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관련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follow-up), 감사 표시이다. 2003년에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국민협회의 일원으로 워싱턴에 로비투어를 온 적이 있다. 당시에는 평화여성회 대표, 여성연합 대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의회 내에 한반도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코리아코커스 관련 의원 및 보좌관, 의회조사국 등을 방문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문제의 동시해결,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였다. 우리 대표단과 의회조사국의 래리 릭쉬와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 생생하다. 올해는 오직 여성들로만 팀을 구성해 워싱턴을 찾았다.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주제로 여성단체대표로만 구성된 팀은 우리가 최초일 것이다. 그 의미를 살려야한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다.

* 미국 여성의원 및 보좌관과 만남



9월19일 미국 공화당 나탈로위 의원과 함께

미 의회 관계자들 대다수가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는 북미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만난 의원 및 의원 보좌관은 총 11명

으로 10명이 여성 코커스에 속해 있었다. 이들 중 한국을 방문했거나 주변에 한국관계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제안을 더욱 흥미로워 했다. 특히 여성코커스 부의장인 잔 쉬아코브스키 일리노이 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베티 맥코럼 미네소타 주 민주당 하원의원(사진의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여성 6자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미 여성의원들에게 한반도 이슈를 알리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문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예민한 문제인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소의 잭 프리처드 소장은 원심분리기 20개를 북한이 신고해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미동포와 만남

한반도 이슈가 워싱턴에서 중요해지면서 재미동포 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미주위원회와 전국재미동포협의회 관계자, 미국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나벨 박,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2003년 로비 방문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한인들이 재미동포의 권익,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서 미국동포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9월20일) 미국AFSC(미국친우봉사회) 관계자와 함께

9월18일에서 20일 사이에 22개의 스케줄을 소화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한인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무사히 일정을 마친 것에 감사하였다. 앞으로 여성6자회담의 성사와 관련해 현실적인 논의를 하면서 가야할 길이 아직 멀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친우봉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방문과 같이 알찬 일정을 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연대정신에 따른 미국친우봉사회의 성의 있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

국 방문을 재정지원해준 한국여성재단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러시아 방문기간 : 2007년 10월24일(수)~10월28일(일)



러시아 평화재단 방문 기념사진
(왼쪽부터 조영희, 부위원장,
한정숙)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회 방문
기념 사진(한정숙, 의장, 조영희)



러시아 여러지역의 병사들로부터
온 감사편지를 읽고 있는 사진
(통역자, 조영희)

■ 언론에 비친 여성6자회담

연합뉴스 2007년 7월16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정수 외, 평화여성회)는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의 여성활동가와 여성의원이 참가하는 '여성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화여성회에 따르면 '여성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 회의로 내년 8월 서울이나 금강산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이를 위해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 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해 각국을 돌며 여성계 네트워크 형성에 나선다.

심영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과 이경숙 국회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국 방문단은 15-18일 베이징에서 중국부녀연맹, 베이징 홍콩여성상담센터, 베이징대 여성연구센터 등을 방문한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문단은 다음달 22-25일 일본 도쿄를 찾아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고미야마 요우코 중의원 의원 등 정계 인사와 여성단체 대표 등을 만날 계획이다.

평화여성회 관계자는 "9,10월 중에 미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동북아 평화실현의 염원을 담은 제안서를 각국의 여성 단체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2008년 금강산에서 여성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여성단체 대표, 여성 평화활동가,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이 7월 15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6자회담 관계국 중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2008년 금강산에서 여성 6자회담을 열자!

우먼타임스 2007년 7월21일 김선희 기자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2008 여성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경험과 체제, 문화를 넘어 여성들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만남의 장을 추구한다. 평화여성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여민회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정부 간 협상 과정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바라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논의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며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 형성자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을 모색하고 그 방안으로 여성 6자회담의 틀을 생각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중국 방문단에는 심영희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남윤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최대 여성단체인 중국부녀연맹을 비롯해 베이징 홍풍여성상담센터, 반가정폭력단체, 베이징대학교 여성연구원, 평화군축인민협의회 등을 찾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과 동북아 평화 실현의 염원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중국에는 별도의 평화 전문 여성단체는 없는 상황이다.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은 이번 방문의 성과로 “이제까지 중국 여성단체들과는 평화를 주제로 한 만남이 없었던 만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현희 사무국장은 “중국 여성단체들이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한편 한국 방문단의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등 중국 여성들의 현안을 돌아보고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갈 때 예상되는 남북 여성의 연대과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부녀연맹 등 중국 여성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여성 6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고 방문단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중국부녀연맹은 북한의 유일한 여성 교류 창구인 조선민주여성동맹과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는 등 관계가 깊다. 정경란 소장은 향후 여성 6자회담에 북한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 여성 교류를 통한 제안과 더불어 중국부녀연맹을 통한 접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8월 22일에는 일본을 방문,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을 비롯해 녹색운동, 소비자운동, 생협에 관심 있는 여성 지방의원들의 네트워크인 전국페미니스트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여성계 리더, 여성단체들과 동북아 평화와 여성 6자회담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9월과 10월에는 각각 미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북한 측에는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여성 대표자 회담에서 여성 6자회담 추진 계획을 전했으며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8.15 대축전에서도 이 같은 뜻을 계속 전달할 방침이다.

김정수 대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 정치나 국제관계 힘의 메커니즘, 군사 안보 담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목표로 구현되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꽃’ 여성들이 심는다

금강산서 여성 6자회담 추진...공존·평등 지향 통일모델 모색

우먼타임스 2007년 7월21일 김선희 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무드가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2.13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북핵 불능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7월 18일 중국에서 열렸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뛰어온 여성계도 통일 과정에 여성의 시각을 담아내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내년에 금강산에서 ‘여성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단체 대표와 평화활동가, 여성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지난 7월 15일 ‘동북아 여성평화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계로 나흘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중국부녀연맹, 평화군축인민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과 동북아 평화 실현의 염원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은 “중국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평화’를 이슈로 연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지난 1997년 발족한 이래 여성계의 평화운동을 이끌어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그동안의 남북여성교류 경험을 살려 최근 여성 평화협상 전문가 양성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지난 4월 처음으로 평화통일 여성대표자회의가 열린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전국에서 250여명의 여성 대표가 참

석한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형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주의적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을 갖춘 여성 통일 전담부서의 신설 ▲친여성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의제 개발 ▲여성들의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개발 등이 제안됐다.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해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지난 6월 여성위원회 주최로 '2007여성대토론회'를 열고 통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보수적인 여성단체로 꼽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지난해 대북 쌀 지원에 이어 지난 6월 28일 금강산에서 '남북 화해 협력과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대규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협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순차적으로 관련 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이러한 여성계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긴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여성회 김정수 상임대표는 "현실 정치나 군사 안보 위주로 진행되는 현재의 평화 담론에 공존과 화해를 지향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여성들의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통일을 이뤄낸 독일, 예멘, 베트남의 경우, 통일 이후 일자리나 사회 보장 측면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막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는 40~45%가 줄고 여성 실업률이 13배나 증가했다. 여성이 소외되고 희생된 통일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 평등 관계를 지향하는 제3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으로 관련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을 3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20.8%(2006년 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여성계는 올해 대선에서 이러한 요구를 여성정책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신문 2007년 10월6일 홍지영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1차 때와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보인다. 그 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공식의제 부문에 정치·경제·문화예술 등과 함께 여성 의제가 포함된 것과 여성계 대표인사 3명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일 특별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정현백(54)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만났다. 정 대표는 내년 8월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여성 6자회담' 준비차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며칠 전 귀국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미국 방문 중에 들었다고.

정 대표는 방북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급히 다녀오느라 숨돌릴 틈도 없어 보였지만, 혜화동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이번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성계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다. 소감이 어떤가?"여성계를 대표해 회담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여성분과가 생겨 더 없이 기쁘다. 특별수행원 49명은 각각 정치, 대기업 대표, 업종별 대표,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뉘 간담회를 갖는다. 여성분과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웃음)"-여성계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갈 예정인가?"권양숙 여사가 참석하는 간담회와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는 간담회 등 두 차례가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남북 여성계 대표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시간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도 할 생각이다. 현재 남한측에서는 모자보건 및 영유아 사업 지원, 남북 여성교류 정례화 등을 의제로 삼았다. 민간단위에서 남북 여성교류는 지속돼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성교류 정례화 합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간담회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회담 뒤 권양숙 여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대회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다."

-지난달 있는 베이징 6자회담 직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회담 결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나?"회담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도 유연해졌고, 북핵문제가 차츰 풀려가고 있는 시점 아닌가. 사실상 이제껏 6자회담은 남북이 주도한다기보다는 끌려가는 입장이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 및 평화구축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6자회담을 남북이 함께 주체적으로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차후에 남북 대표들이 만나 느슨한 형태로라도 평화선언을 했으면 한다."-이번 회담은 남북간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대표께서도 일찍이 지금보다 큰 틀의 남북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을 통하면 개방이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력을 안할 수 없다. 작년 한해 10만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6년새 12.7%나 증가한 수치다. 정규 항공노선은 없지만 한달에 열번 전세기가 뜨고 있다. 큰 선박도 하루에 34차례나 오고 간다. 북의 항구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하루에 60~70척도 거뜬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남측으로 내려오는 퇴근 버스가 오후 5시에 단 한차례 운행된다는지, 전화회선이 고작 500회선만 설치돼 있는 등의 제도적 제한을 하루 빨리 뛰어넘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을 위한 제도화 및 법제화가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경협이 확대되면 여성기업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예상하나?"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계에서는 여성기업인의 개성공단 진출을 주장해왔다.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여성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의 공동 관심사는 바로 경협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경제계 인사 규모가 18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단 한명(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경협 지원과정에 여성의 진입이 너무 막혀 있다. 사석에서 통일부 관계자에게 '여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차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관계자 말로는 여성계 간담회에서 정책화되면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두고 보겠다.(웃음)"-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기대감과는 별도로 통일 비용과 '퍼주기식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독의 경우 통일 전에는 매년 32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동독에 지원했고, 통일 후에도 GDP(국내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약 1000억달러(100조원)를 15년간 지원했다. 우리가 올 한해 지원한 4억달러(4000억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분단이 지속됨으로써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을 생각해보지 못한 통일비용의 퍼주기 논쟁은 맹점 그 자체다. 사실 모든 북측 지원 비용은 남북기본관계법에 의거,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다. 여야, 양당간의 합의를 통해 액수를 결정한다. 그나마도 총액이 5억원을 넘을 때마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이 야당에 의해 나올 때마다 답답할 뿐이다."

내년 '여성 6자회담' 열린다

여성신문 2007-10-06 12:40:28 홍지영 기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존의 6자회담과 별도로 남북한과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여성리더들이 참석하는 '여성 6자회담'이 내년 8월 서울 또는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성 6자회담 추진을 위해 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조영희·김엘리·이하 평화여성회)는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해 지난 7월부터 중국·일본·미국을 방문,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 여성단체 지도자들을 만났다. 러시아는 이달 안에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은 국내 여성단체 대표, 여성 평화활동가, 여성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각국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형성과정에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북아 여성평화연대 구축을 위한 '여성 6자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방문단의 일원으로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다녀온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 하원의원, 한국교포, 여성 평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여성 6자회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제안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미국행에는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미 하원의원 회관을 30~40분 간격으로 뛰어다녔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한·미간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한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여성 코커스(당원대회) 의장인 잔 시아코브스키(일리노이주)와 베티 매킨(미네소타주) 두 민주당 하원의원과의 만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대표는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여성 6자회담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평화운동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뉴욕주 상원의원인 힐러리 클린턴을 만날 계획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대신 여성보좌관인 안 카바간을 만났다.

미국의 반전여성단체인 '코드 핑크'와 국제NGO인 WILPF(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여성들의 평화운동 활동소식을 접한 것도 큰 소득으로 꼽았다.

정 대표는 "한국을 한번이라도 방문했거나 평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여성 6자회담에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간 체제나 문화 차이로 생긴 오해와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성 6자회담'은 기존 6자회담에 여성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평화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화여성회 주도로 기획됐다.

내년 회담에서는 역사와 체제·문화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의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내달 남북 정상 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여성계 대표3명 포함

여성신문 2007-09-17 12:40:13 주혜림 기자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할 민간인 특별수행원으로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등 3인의 여성계 인사가 포함됐다.이에 따라 향후 남북 여성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계 6명, 경제계 17명, 사회·문화계 21명, 여성계 3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수행원의 규모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24명)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여성계 인사의 경우 2000년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한명이었던 것에서 2명이 늘어난 3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경제협력임을 반영해 경제계

인사를 2000년 9명에서 17명으로 늘린 것도 눈에 띈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영역을 넓혀 균형 있게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성 등 남북간 부문별 접촉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선발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김화중 여협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게 돼 영광"이라며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양측 여성계가 과거보다 발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여협은 남측의 살림살이를 북녘 동포들과 나뉘 쓰는 '남북 살림 나누기 운동'을 최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의해놓은 상태여서 북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도 "여성계를 대표하는 특별수행원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남북간의 문화 전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중점을 뒀 많은 준비를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용산 이전 기념으로 북한 문화재 특별전 '평양에서 온 국보들'을 유치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현백 여연 공동대표는 내년께 성사될 여성 6자회담 준비를 위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다. 6자회담 참가국의 정부 관계자와 여성단체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에 관한 한국 여성의 입장을 알리고 '2008 여성 6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 대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평화여성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들 여성계 인사는 정상회담 기간에 북측 여성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 여성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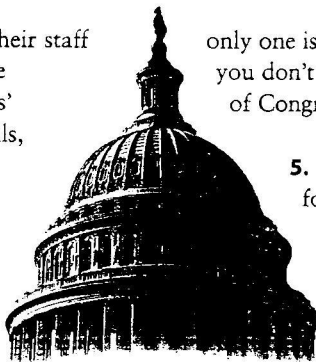


Eight Tips for a Successful Lobby Visit

Meeting with your members of Congress or their staff and developing a personal relationship are the most effective ways to influence the legislators' positions on an issue. Phone calls, faxes, emails, and letters are all important but are not as effective as meeting with your members of Congress or their staff.

1. **Make an appointment.** Schedule the lobby visit in advance; don't just show up. A broad-based delegation of constituents (five is ideal) increases the likelihood of getting a meeting with the legislator rather than his or her staff. Fax the scheduler with your written meeting request (who, where, when, and why), and follow up with a phone call. Many offices ignore a request for meeting with their member of Congress if it's not made in writing.
2. **Know your legislator's record.** Information on your legislator's co-sponsorship of bills and previous votes is available at www.fcnl.org (click on "Contact Congress" in the left column and then enter your zip code). You can also find valuable personal information about your legislator on his or her home page by following the links from "Contact Congress." Have a face-to-face pre-meeting with your delegation to determine who will cover which points and who is going to "chair" the meeting to keep it on topic.
3. **Be punctual and positive.** Be on time, and thank the staff person for his or her time. Even if you disagree on most issues, compliment the member of Congress for a vote or action you appreciated. Building rapport with staff is important in developing a long-term relationship.
4. **Focus the meeting.** Briefly introduce the individuals of the group, the organizations you represent, and the topic you wish to discuss. It is important to talk about

only one issue and to stay on this topic. Remember,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an issue; members of Congress meet with you because you elect them.



5. **Listen and gather information.** Ask for your legislator's view on an issue. Be patient and passionate; don't react angrily if you don't get the response you want. Remain polite.
6. **Make a specific request.** Rather than something generic like "I want you to support the environment," a more effective "ask" is to request support for a specific bill or legislative action: "I would like Congressman Doe to support H.R. 1234, the Tree Planting Act." Give several brief points why your member of Congress should support this legislation. Avoid a long philosophical debate about the issue; be concrete.
7. **Follow up.** Tell the staff person you will get back to him or her if you can't provide information about an issue on the spot. If the staff person is unfamiliar with a bill or is unsure of the legislator's position, ask for follow-up correspondence. Leave one or two pages of relevant material.
8. **Express your thanks.** At the end of the meeting, thank the staff person for his or her time. Send a thank you letter to the staff person soon after your visit, repeating your "ask." A letter is a nice gesture and helps to develop a relationship over time with a member of Congress and her or his staff.

It often takes several meetings with a member of Congress or his or her staff to influence legislative action. A lobby vis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a congressional office and to get congressional attention on an issue, but make sure to follow up with phone calls, faxes, emails, and letters to the editor.

March 2006

